

# 평가 문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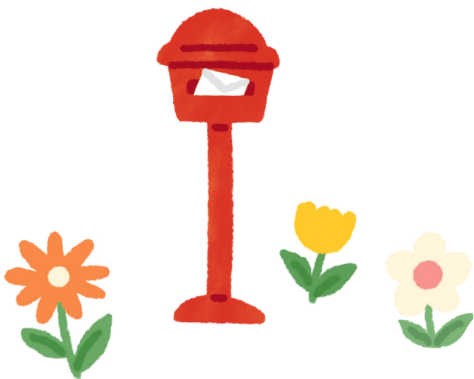
미래엔  
교과서

국어 1-1

신유식 교과서편



바른답.  
알찬풀이



# 1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 대단원 필수 어휘 미리 보기

16~17쪽

- 01 (1)-㉠ (2)-㉡ (3)-㉢ (4)-㉣ (5)-㉤  
 02 (1)갈봄 (2)눈물짓다 (3)소통 (4)쌍방향  
 03 (1)상호 작용 (2)초상권 (3)쌍방향 (4)쓸쓸히  
 04 (1)덩굴 (2)소통 (3)빛대어 (4)눈물짓고

## 1 길

### 개념 확인 문제

18쪽

- 01 비유 02 (1)-㉠, (2)-㉡, (3)-㉢ 03 (1)○ (2)× (3)○ (4)×  
 04 ④

- 01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은 비유의 뜻이다.  
 02 (1)의 직유법은 이어 주는 말인 ‘같은’을 사용하여 ‘손바닥’을 ‘단풍잎’에 빗대어 표현한 ㉠이다. (2)의 은유법은 ‘내 마음(A)은 호수요(B).’로 표현한 ㉡이다. (3)의 의인법은 ‘장미’를 사람인 것처럼 ‘손을 흔들며 웃는다’고 표현한 ㉢이다.  
 03 (2)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은유법’에 해당한다. (4) 운율은 같은 소리의 반복 외에도 같은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의 반복으로도 형성된다.  
 04 음성 상징어 중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의미한다. ④에서는 의태어 ‘훨훨훨’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내용 확인 문제

19쪽

- 01 ② 02 ② 03 ⑤ 04 하나로 뭉쳐 함께 성숙해 가는 세계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 01 이 시는 ‘길’, ‘덩굴’, ‘마을’, ‘포도알’, ‘갈봄’, ‘토실토실’ 등의 시어에서 ‘르’ 소리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포도 덩굴’, ‘포도송이’, ‘포도알’ 등과 같은 시어에서 ‘포도’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갈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풍경 묘사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④ 자연물인 ‘포도’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화자의 생각도 드러나 있지 않다.

- 02 이 시에 쓰인 비유를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연결하면 ‘길-포도 덩굴’, ‘마을-포도송이’, ‘집-포도알’, ‘세계-한 덩이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②이다.

- 03 이 시의 2연에서는 이어 주는 말인 ‘같은’을 사용하여 ‘포도송이’와 ‘마을’, ‘포도알’과 ‘집’을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⑤는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04 시인은 길을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점점 더 하나의 세계로 확장되어 함께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은 한 덩어리로 뭉쳐 서로 화합하며 성숙해 가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 활동 확인 문제

20~23쪽

-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① 09 음악성, 분위기 10 ④ 11 ③ 12 하늘 다리 놓였  
 다 / 알롱알롱 무지개 13 ④

- 01 이 시는 ‘마을(포도송이)’과 그 안의 ‘집(포도알)’이 서로 ‘길(포도 덩굴)’을 통해 연결되고, 이 길을 통해 서로를 도우며 하나의 더 큰 ‘세계’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마을과 마을은 ‘포도알(집)’이 아니라 ‘포도 덩굴(길)’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② 이 시에는 다양한 색상의 포도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 ‘집’을 빗대어 표현한 것은 ‘포도알’이다. 따라서 ‘포도송이’ 모양의 집을 떠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도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이 함께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02 이 시의 5연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을 ‘한 덩이 과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시에서 '길'을 '포도 덩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두 대상이 모두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 있다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두 대상 사이에서는 색의 유사함이나 비슷한 계절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길'과 '포도 덩굴'에는 '르' 소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까닭으로 두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두 대상 모두 특정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유 표현은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과 빗대어 표현하려는 대상(보조 관념)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하므로 알맞지 않은 내용이다.

**04** 마을은 집이 모여 이루어지며 길에 붙어 자리를 잡고 있다. 포도송이도 포도알이 모여 이루어지며 포도 덩굴에 붙어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하는 비유의 짝은 마을과 포도송이라고 할 수 있다.

**05** ㉠에는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두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듯이'와 같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한 ④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다.

**06** (가)는 (나)와 같은 내용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나)는 비유를 사용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가)가 (나)에 비해 내용 파악이 쉽고, (나)는 (가)에 비해 더 인상적이고 감각적이게 느껴지는 것이다.

**07**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의미하며, 같거나 비슷한 소리나 단어가 반복될 때 형성된다. 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운율이 아니라 '심상'에 대한 내용이다.

**08** (가)와 (나)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는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고, (나)는 내용을 비유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르', '오' 소리의 반복이나 '포도'라는 시어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보다 리듬감이 더 느껴진다.

**09** 시에 쓰인 운율은 시의 음악성을 드러내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또한 시의 주제를 강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10** 시 <햇비>는 햇비를 맞으며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 시에는 빛깔을 나타내는 말인 색채어가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이를 통해 신비롭고 색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순우리말인 고유어로만 시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이 시에서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의 비유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시는 햇비를 맞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보슬보슬', '알롱알롱' 등과 같은 모양을 흉내 내는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의인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시에서 의인법이 쓰인 시구는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이며, 이 중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해님'에 해당한다.

**12** 시 <햇비>의 2연에는 '무지개'를 '하늘 다리'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나타나 있다.

**13** 같은 종류의 비유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옥수수대처럼 크게', '닷 자 엇 자 자라게', '노래하자 즐겁게' 등에서 '-게'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③ 이 시는 '아씨처럼 나린다'와 같이 한 행을 2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규칙적인 끊어 읽기를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

⑤ '보슬보슬', '알롱알롱' 등과 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만점 대비** 소단원 핵심 문제

25~27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① **05** ㉠에는 비유 표현 중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표현하려는 대상은 '집'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포도알'인데, 두 대상은 모여서 각각 '마을'과 '포도송이'를 이룬다는 비슷한 점이 있다. **06** ④ **07** ④ **08** ⑤

**09** <보기>에는 은유법이, ㉠에는 직유법이 쓰였다. <보기>에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하려는 대상 사이에 이어 주는 말이 쓰이지 않았지만, ㉠에는 두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처럼'이라는 이어 주는 말이 쓰였다. **10** ③ **11** ② **12** ③ **13** (가)는 '토실토실', (나)는 '보슬보슬', '알롱알롱'과 같이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4** ③

01 (가)의 2연에서는 이어 주는 말인 ‘같은’을 사용하여 ‘마을’을 ‘포도송이’에, ‘집’을 ‘포도알’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 표현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와 같은 비유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이고,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③ (가)는 직유법, 은유법 등의 비유 표현이 쓰여 (나)보다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④ (가)는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지만, (나)는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세계를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행동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4연은 자라나는 길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돕고 마을들이 이어지는 것을 표현한 연이다.

03 <보기>의 시어들은 ‘ㅇ’ 소리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은 ‘길’을 ‘포도 덩굴’에 빗대어 표현한 시구이다. 이 시구에는 비유 표현 중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보기>의 시에서 은유법이 사용된 부분은 작품의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에 해당한다.

05 **서술형** ㉠에는 ‘같은’이라는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집’을 ‘포도알’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표현하려는 대상인 ‘집’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포도알’은 모여서 각각 ‘마을’과 ‘포도송이’를 이룬다는 비슷한 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쓰인 비유 표현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에 쓰인 비유 표현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에 쓰인 비유 표현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가)의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은 ‘한 덩이 과일로 / 토실토실 익어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한 덩어리로 묶져 서로 화합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세계의 모습일 것이다.

07 이 시에서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후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나’이다. ‘나’는 햇비를 맞으며 ‘옥수숫대처럼’ 자라야 하는 존재이며, 또 ‘동무들과 즐겁게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에 해당한다.

② 이 시는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희망차며, 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나타난다.

③ 이 시는 ‘아씨처럼 V 나린다’, ‘보슬보슬 V 햇비’와 같이 한 행을 두 번씩 끊어 읽으면서 운율을 느끼게 한다.

⑤ 이 시의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와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 부분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드러난다.

08 이 시는 햇비가 내리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 있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 생동감 넘치게 그려 내고 있는 작품이다.

09 **서술형** <보기>는 은유법, ㉠은 직유법이 쓰였다. 두 비유 표현은 이어 주는 말인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어 표현하느냐, 이어 주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와 ㉠에 쓰인 비유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보기>와 ㉠에 쓰인 비유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보기>와 ㉠에 쓰인 비유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0 ㉠은 은유법, ㉡는 의인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③은 ‘처럼’이라는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눈’을 ‘봄빛’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11 (나)는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와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에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가)는 이러한 의인법이 사용된 시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12 읽는 이에게 시의 음악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비유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아니라, 운율을 형성했을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13 **서술형** (가)의 ‘토실토실’, (나)의 ‘보슬보슬’, ‘알롱알롱’ 등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4 (가)의 ㉠에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나)에서 이와 동일한 비유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다.

## 2 사랑하는 별 하나

### 개념 확인 문제

28쪽

01 ③ 02 ③ 03 (1)×(2)○(3)○ 04 의미, 인상

01 상징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오답 풀이 ① 운율에 대한 설명이다.  
 ② 심상에 대한 설명이다.  
 ④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⑤ 복선에 대한 설명이다.

02 관습적 상징은 오랫동안 특수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관습화되어 형성된 상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예는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④ 원형적 상징에 해당한다.  
 ⑤ 개인적(문학적) 상징에 해당한다.

### Tip

#### 소나무가 절개를 상징하는 까닭

우리나라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늘 푸르고, 추운 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나무는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밀동에서 싹이 다시 나지 않고 말라 죽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와 같은 소나무의 습성을 바탕으로 소나무를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03 (1) 상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04 상징을 활용하면 독자는 머릿속에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상징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 내용 확인 문제

29쪽

01 ② 02 ② 03 ①

01 1연 '외로워~비취 주는'과 3연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으로 보아 '나'는 '별'을 외로운 사람을 달래 주는 따뜻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②는 알맞다.

02 외롭거나 마음이 어두울 때 자신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달래 줄 수 있는 '별 하나', 또는 '길을 비추어 주는 / 그런 사람 하나'를 바라는 모습에서 화자가 외롭고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시에서는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위로해 줄 존재를 '별'과 '꽃'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냈다.

### 활동 확인 문제

30~33쪽

01 ② 02 ② 03 사랑하는 별 하나, 마음 어두운 밤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 하나 04 ① 05 ⑤ 06 위로, 순수  
 07 ② 08 ③ 09 ② 10 ④ 11 ③ 12 행복 13 ②

01 '눈 마주쳐 마음 비취 주는'은 '나'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구가 아니다. 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나'를 달래 주는 '별'의 모습과 관련 있는 시구이다.

02 이 시는 1, 2연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였고, 3, 4연에서 그런 사람을 갖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내용상 1, 2연과 3, 4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03 이 시의 3, 4연을 통해 '나'가 '갖고 싶다'고 소망하는 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3연에서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하였고, 4연에서 '마음 어두운 밤 길을수룩', '길을 비추어 주는 / 그런 사람 하나'를 갖고 싶다 하였다.

04 이 시에서 '나'는 '별',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1, 2연을 통해 알 수 있는 '별'과 '꽃'의 특성은 외롭고 괴로운 사람을 비취 주고 웃어 주는 대상이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을 의미한다.

### Tip

#### '별'과 '꽃'의 특성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에서 돋보이는 존재임.</li> <li>맑고 반짝임.</li> <li>밝게 길을 비취 줌.</li> </ul>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에 핀.</li> <li>소박하게 하얗고 순수함.</li> <li>들에 피어 흔히 볼 수 있고 평범함.</li> </ul>

05 이 시에서는 ‘별’과 ‘꽃’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별’은 ‘꽃’과 같이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에 해당한다.

② ‘꽃’은 ‘나’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가 되고 싶은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별’이 상징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며, 이 ‘사람’이 시에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④ 이 시에는 ‘별’과 ‘꽃’ 두 개의 구체적 대상이 드러난다.

06 이 시에서 ‘별’과 ‘꽃’의 상징적 의미는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07 상징을 사용하여 시를 창작하면, 시인은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독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는 상징을 사용하여 시를 창작했을 때의 효과로 볼 수 없다.

08 툄틸과 미틸의 요술 모자는 파랑새를 찾게 된 후에 남매가 할머니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다. 요술 모자는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툄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사라져 있었다.

09 툄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 이동한 공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추억의 나라(꿈속) → 밤의 궁전(꿈속) → 숲(꿈속) → 행복의 나라(꿈속) → 우리 집’이 된다. ‘이웃집’은 툄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 이동한 공간이 아니라, 남매에게 새를 빌리러 온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공간이다.

10 행복의 나라에 도착한 툄틸과 미틸은 자신들의 집에 살고 있다는 아이들, 즉 많은 행복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툄틸과 미틸에게 자신들은 늘 사람들 곁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라는 말을 전한다. 이를 통해 ‘행복’은 우리 주변에 넘치게 존재하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 <파랑새>에서 툄틸과 미틸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등을 여행하면서 파랑새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툄틸과 미틸 남매는 행복의 나라에 도착해서 많은 행복, 즉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난 후 ‘우리 집’ 안에서 ‘파랑새’를 찾게 된다. 이후 남매는 새를 빌리러 온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다음날 이웃집 할머니의 딸이 파랑새를 돌려주러 찾아오지만(㉤),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면서 장면은 마무리된다.

12 <파랑새>에서 ‘파랑새’가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곁에 있으나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복을 의미한다.

13 상징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하면,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인간적 대비 소단원 핵심 문제

35~37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① 06 ② 07 ④

08 ‘사랑하는 별 하나’는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한다. 09 ⑤ 10 ②

11 이 글에 쓰인 상징 표현은 ‘파랑새’이며, ‘파랑새’는 우리 곁에 있으나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복을 의미한다. 12 ④

13 ② 14 ⑤

01 이 글은 마음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시’이다.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글의 갈래 중 소설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② 시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대상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생각, 즉 관념도 중심 소재로 사용한다.

④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는 소설이다.

⑤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 또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이다. 수필은 정해진 틀이 없이 글쓰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02 이 시에는 관습적 상징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독창적인 상징인 개인적(문학적)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별’과 같은 사람,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의 1, 2연에서는 ‘있을까’를 반복하고, 3, 4연에서는 ‘갖고 싶다’를 반복하면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의 1연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구에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다.

⑤ 이 시의 2연에서는 ‘환히’를 ‘화안히’로 표현한 시적 허용이 나타나고 있다.

03 이 시의 1, 2연에서는 화자 자신이 ‘별’,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하였고, 3, 4연에서는 ‘별’과 같은 사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04** 화자는 외롭고 쓸쓸하며 세상일에 괴로워 마음에 어둠이 깊어질 때가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 수 있는 표현이 각 연에 제시되어 있다. 1연의 5행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는 화자가 처한 정서나 상황을 보여 주는 행이 아니라 화자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05** 이 시에서 ‘별’과 ‘꽃’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이다.

**06** 이 시에서 ‘별’과 ‘꽃(들꽃)’은 모두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둘을 대비되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④ ‘들꽃’은 들에 피어 있는 하얀 꽃으로,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성격의 대상이 아니다.  
 ③ ‘눈물짓듯’이라는 표현에서 상대의 힘든 상황에 공감해 주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07** <보기>는 작품에서 전하려는 주요 내용이 문장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고, [A]는 동일한 내용이 상징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보기>의 문장을 [A]와 같은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시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드러낸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08**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가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이 시에서는 ‘사랑하는 별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①이 의미하는 바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①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했으나,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①이 의미하는 바를 제시했으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9** 이 글에서는 ‘파랑새’를 찾겠다는 티틸과 미틸의 목표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 두 인물이 겪는 고난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 이를 위한 두 인물의 끝없는 도전이 나타나 있지 않다.

**10** 티틸과 미틸 남매는 빛의 요정을 추억의 나라에서 만난 것이 아니다. 남매와 빛의 요정은 처음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부터 함께 있었다. 또한 빛의 요정 역시 남매와 함께 여러 곳으로 파랑새를 찾아다녔으므로, 빛의 요정이 그들에게 파랑새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서술형** 이 글에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 우리 곁에 있으나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파랑새’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에 쓰인 상징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에 쓰인 상징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에 쓰인 상징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2** 티틸과 미틸 남매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먼 곳으로 파랑새를 찾으러 떠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파랑새를 놓치고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아이를 친절하게 달래 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티틸과 미틸 남매가 따뜻한 정이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3** (나)와 (다)는 꿈속의 나라인 ‘행복의 나라’가 배경이며, (라)와 (마)는 현실 속 티틸과 미틸 남매의 집이 배경이다.

**14** 이 글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한 ⑤가 이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3 매체로 소통하기

#### 개념 확인 문제

38쪽

01 매체 02 생산자, 수용자 03 ① 04 ④ 05 ⑤

**01**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매체이다.

**02**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이들, 즉 매체 이용자는 생산자와 수용자(소비자)로 구분된다. 이 중 생산자는 매체에 의미나 내용 등을 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를 의미하고, 수용자(소비자)는 매체 생산자가 만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한다.

**03** 상호 작용적 매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쌍방향으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매체이다.

- 04 공적 정보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상호 작용적 매체로는 학교 누리집이 있다. 제시된 매체 중 책이나 신문, 라디오 등과 같은 매체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는 공적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공유하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 05 상호 작용적 매체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는 다른 곳에 공유하지 말라는 경고문과 함께여도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작용적 매체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활동 확인 문제

39~44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③	11 책, 친구들	12 ⑤	13 ⑤	
14 ③	15 ⑤	16 ④	17 저작권	18 ④		

- 01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져 책과 신문이 등장하였고, 전기·전자 기술의 발달로 방송 매체가 등장하였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쌍방향 소통 매체가 등장하였고, 이동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이동 통신 매체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매체가 발달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 02 매체는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일방향 소통 매체에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쌍방향 소통 매체로 발달하였다.
  - 오답 풀이 ②, ④ 일대일의 소통 방식에서 일대다의 소통 방식을 거친 후, 다양한 정보 공유 및 공유받은 정보를 재생산하는, 매체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단계로까지 발달했다.
  - ③ 책과 신문이 등장하기 전에도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같은 매체가 존재했다.
  - ⑤ 가장 최근에는 많은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매체가 발달했다.
- 03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로써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하였다.

- 04 쌍방향 소통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이다.
  - 오답 풀이 ① 쌍방향 소통은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가 중심에 있는 소통 방식이다.
  - ② 인쇄 매체에는 책이나 신문 등이 있다. 이것들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 아니라 일방향 소통 방식과 관련 있는 매체이다.
  - ③ 스마트폰은 쌍방향 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 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소통 방식은 일방향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05 텔레비전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고,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 06 주연이의 학교 누리집에 올랐던 게시물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생활에 관한 공적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다.
- 07 학교 누리집의 주요 매체 이용자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해당한다.
- 08 학사 일정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안내 자료이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관한 공적 정보를 다루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만하다.
- 09 이모티콘은 공적 소통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사적인 소통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학교 누리집과 같은 공적 소통 공간에서는 언어를 간결하게 가다듬은 표현과 공손하고 격식 있는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 주연이는 블로그에 사적인 내용의 글을 썼다. 일상 기록에 어울리는 내용인 만큼 편하게 작성한 글로, 격식을 갖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11 주연이는 독후감 쓰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책 《어린 왕자》를 고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하였다.
- 12 개인 블로그는 매체 이용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관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 오답 풀이 ① 개인 블로그는 사적 정보를 게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다.
  - ② 상황에 따라 매체 이용자인 수용자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된 주연이의 게시 글을 통해서 매체 이용자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③ 개인 블로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 소통을 진행한다.
  - ④ 개인 블로그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외에도 개인의 생각, 의견, 관점 등을 자유롭게 제공한다.



13 <보기>에 제시된 블로그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공감, 댓글, 공유, 저장 아이콘이 있고, 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 답은 새 글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바로 밑에 다시 추가 댓글을 작성하면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주연이의 블로그 글에 제시된 해시태그에는 주연이의 학교, 학년, 반, 이름이 노출되어 있다. 개인 블로그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15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꼭 수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극적이지만 한 표현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 은호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책 《어린 왕자》의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일부분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책 《어린 왕자》의 일부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  
 ②, ③ #내가 읽은 책 #인상 깊은 구절 #어린 왕자와 같이 해시태그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해시태그의 내용을 통해 은호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은호의 게시 글이 재게시되는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어린 왕자》가 화제가 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글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재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창작물에 관해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소통할 때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표절하지 않고, 창작물을 인용해서 쓸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18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글이 항상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운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소통할 때에는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널리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②, ③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자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01 ② 02 ⑤ 03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매체 소통 방식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매체 이용자들의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었다. 04 ① 05 ② 06 ⑤ 07 ⑤  
 08 글에서 해시태그로 제시한 학교, 학년, 반, 이름 같은 개인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이런 개인 정보는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09 ② 10 ⑤

01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체는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에서 여러 사람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쌍방향 매체로 발달하였다.

02 방송 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일방향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가 이에 속한다.

03 **서술형**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에서 이루어지던 일방향 소통이 쌍방향 소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매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쌍방향 소통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생긴 매체 소통 방식의 변화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생긴 매체 소통 방식의 변화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생긴 매체 소통 방식의 변화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매체 이용자들이 쌍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제시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가 이에 해당된다.

05 해시태그로 현재 인기 있는 화제를 파악해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③ (다)의 생산자인 은호는 책에서 인용한 구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  
 ④ (나)와 (다)의 매체 이용자들은 공감 표현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가)~(다)의 매체에는 모두 댓글 기능이 있어 매체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상호 작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06 (나)와 (다) 같은 소통 공간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사진이나 그림 혹은 이모티콘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07 (가)와 같은 학교 누리집에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게시한다. ‘주연이가 좋아하는 영화’는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학교 누리집이라는 소통 공간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08 **서술형** (나)의 해시태그에 제시된 주연이의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삭제를 권유하는 조언의 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주연이에게 해 줄 조언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주연이에게 해 줄 조언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주연이에게 해 줄 조언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9 (다)는 은호가 이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모습이다. (다)에서 은호는 《어린 왕자》를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자유롭게 게시했을 뿐, 이를 통해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10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정보의 사실성과 타당성, 신뢰성 등을 모두 점검하고 잘못된 내용이 없을 때 게시물로 제공해야 한다. 유명인의 말이라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 상호 작용적 매체의 게시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②, ④ 공유하려는 정보가 개인 정보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신이 공유한 정보를 누가 볼 것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만점 완성 대다원 종합 문제

48~55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7 (나)의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의인법과 같은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에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는(대상에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08 ④ 09 ③ 10 ④  
 11 ① 12 ㉠과 ㉡에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상징 표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은 은호가 제시한 글의 출처 정보가 담겨 있다. 은호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글을 게시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의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서술형 실력 풀이

24 이 시에는 ‘같은 포도 덩굴’, ‘세게는 한 덩이 과일’에 은유법이,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에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다. 비유 표현 중 은유법은 이어 주는 말 없이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고, 직유법은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5 (가)에서는 ‘토실토실’, (나)에서는 ‘보슬보슬’이라는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6 이 시에서 ‘별’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한다. 화자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별’과 같은 사람을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7 승아는 학교 누리집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반말을 사용하며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 누리집과 같이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는 공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소통해야 한다.

01 (가)~(다)에 제시된 작품의 갈래는 모두 시이다. 시는 대체로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세련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02 (가)와 (나)에는 맞춤법에 어긋나지만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하여 사용하는 시어, 즉 시적 허용을 한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에는 ‘환히’를 ‘화안히’로 표현한 부분에서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시 세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에 제시된 작품 기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지에 제시된 특징이 각 작품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각 다른 작품의 기호와 특징을 연결하여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이 익숙하다고 해서 제시된 기호의 지문과 연결해 보지 않고, 머릿속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03 (가)는 ‘토실토실’, (나)는 ‘보슬보슬’, ‘알롱알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지만, (다)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ㄹ’과 ‘ㅇ’ 소리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② ‘포도’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③ ‘아씨처럼 V 나린다’와 같이 시의 한 행을 두 번 끊어 읽도록 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④ 문장 끝에 ‘있을까’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04** 운율은 시의 음악성을 드러내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의 주제를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효과가 있다.

**05** (가)와 (다)에 공통적으로 쓰인 비유 표현은 직유법이다. (가)의 2연 2, 3행과 (다)의 1연 1행에서 이어 주는 말 ‘같은’을 사용해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다)에는 표현하려는 대상, 즉 원관념이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다)에 쓰인 비유 표현에서는 대상의 상위, 하위 관계를 구분할 수 있지 않다.

④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⑤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빗대는 것이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두 시에 공통적으로 쓰인 비유 표현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두 시에 공통적으로 쓰인 비유 표현의 종류를 찾아야 한다.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해 직접 빗대었는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비유 표현의 종류를 판단하고, 이후 관련된 비유 표현의 특성이 바르게 제시된 선지를 답으로 찾도록 한다.

**06** (가)의 4~5연을 보면, 시인은 길로 연결된 사람과 마을이 서로 돕고, 교류를 통해 더 성숙한 하나의 세계로 커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07**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 표현은 ‘의인법’이다. (나)에서 의인법이 쓰인 시구는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이다. 이와 같이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를 표현하면, 대상에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고, 대상에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시에서 의인법이 쓰인 부분을 찾고, 의인법의 사용 효과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시에서 의인법이 쓰인 부분을 찾고, 의인법의 사용 효과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시에서 의인법이 쓰인 부분을 찾고, 의인법의 사용 효과를 서술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8** 햇비는 햇벌이 짹짹한 날에 잠깐 내리다 금방 그치는 비로, ‘아씨’처럼 수줍은 듯 잠깐 내리다 사라지기 때문에 굵은 비가 오랫동안 세차게 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2연 2행을 통해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

② 1, 2연의 6행과 7행을 통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햇벌이 나 있을 때 내리는 비가 ‘햇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이러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③ 1연에서 햇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2연에서 아이들이 무지개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09** (가)의 ㉠은 은유법이 쓰인 행이다. (나)에서 은유법이 쓰인 부분은 ㉡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직유법이 쓰였다.

④ 청유형 표현으로, 비유 표현이 사용된 시구는 아니다.

⑤ 의인법이 쓰였다.

**10**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으며 읽는 것은 (가)와 같은 시의 감상 방법에 해당한다. (나)는 동화로, 대체로 줄글을 통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으며 읽는 것은 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11** (가)는 ‘별’, ‘꽃’과 같은 시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나)는 작품의 중심 소재인 ‘파랑새’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행복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주제를 잘 드러냈다.

**12** **서술형** (가)의 ㉠ ‘별’과 ㉡ ‘꽃’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적 시어이다. ㉠과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상징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3** ‘별과 같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밝혀 주는 사람이다. ③의 화자도 누군가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금 같은 시를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③의 화자가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외로움을 견디고 수용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로,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이름을 부르는, 소통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로,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부끄럼이 없이 살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로,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너’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시에 쓰인 상징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대상이 나타나 있는 시를 찾는 적용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된 시에서 ‘별과 같은 사람’과 유사한 관점 또는 유사한 태도를 가진 대상을 찾아본다.

- 14** (가)의 화자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또 그런 사람을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 과정에서 (가)의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슴 설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거나 (㉔), 별처럼 반짝이는 가슴 설레는 그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모습(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5** (나)의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행복을 상징한다.
- 16** 상징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작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현하려는 추상적 개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냄으로써 독자가 그 대상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 17** (다)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매체 이용자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있는 매체의 발달 단계는 ㉔이다. 또한 (다)는 ㉔의 설명처럼 매체 이용자들의 상호 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쌍방향 소통이 강화된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 18** 재공유, 재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의 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나), (다) 모두 항상 게시 글 생산자와의 소통보다 불특정 다수와의 재공유, 재생산으로 인한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게시 글 생산자와 매체 수용자와의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쌍방향 소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다) 각각의 매체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적 공간인 (가)보다 사적 공간인 (나), (다)에서 더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매체별 소통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 19** (가)는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 중 학교 누리집과 같은 것은 학교생활에 관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 20** (나)는 매체 이용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관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이다. 개인 블로그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ㄱ처럼 작품의 전체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게 되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ㄴ처럼 서점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다.
- 21** (나)의 해시태그에는 매체 생산자인 주연이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 22** (다)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정보를 끊임없이 재공유, 재생산하면서 매체 이용자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공간에 가짜 뉴스를 제시할 경우,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지게 되어 정보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3** **서술형** ㉔은 은호가 게시한 글의 출처이다. 은호는 글의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은호가 게시 글에 출처를 밝혀 쓴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은호가 게시 글에 출처를 밝혀 쓴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은호가 게시 글에 출처를 밝혀 쓴 까닭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4** ‘길은 포도 덩굴’, ‘세계는 한 덩이 과일’에 은유법이 쓰였는데,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이어 주는 말 없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에 직유법이 쓰였는데, 직유법은 ‘같이(같은), ‘처럼’, ‘듯이’, ‘인 양’ 등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채점 기준	배점
시에서 비유 표현이 사용된 시구를 찾고, 이와 관련한 비유 표현의 종류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시에서 비유 표현이 사용된 시구를 찾고, 이와 관련한 비유 표현의 종류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시에서 비유 표현이 사용된 시구를 찾고, 이와 관련한 비유 표현의 종류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5**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음운),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의 반복과 규칙적인 끊어 읽기,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으로 형성된다. (가)에서는 ‘토실토실’, (나)에서는 ‘보슬보슬’이라는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의성어),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의태어)을 뜻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공통적 요소를 찾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가)와 (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공통적 요소를 찾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가)와 (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공통적 요소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6** 이 시에서 ‘별과 같은 사람’은 ‘나’가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눈 마주쳐 주고 마음을 비춰 주는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별 하나’는 화자가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해 주는 대상으로, 화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별’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고, 화자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별’과 같은 사람을 갖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의 소망을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지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화자의 소망을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지어 서술했지만,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화자의 소망을 서술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7**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 등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승아는 학교 누리집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반말을 사용하며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 누리집처럼 공적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는 공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상호 작용적 매체 중 공적 공간에서의 올바른 소통 방식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상호 작용적 매체 중 공적 공간에서의 올바른 소통 방식을 서술했지만,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상호 작용적 매체 중 공적 공간에서의 올바른 소통 방식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2 간추리고 쓰고

### 대단원 필수 어휘 미리 보기

58~59쪽

- 01 (1)-㉠ (2)-㉡ (3)-㉢ (4)-㉣  
 02 (1) 살포 (2) 작물 (3) 보편적 (4) 초미  
 03 (1) 정체성 (2) 밀봉하여 (3) 아우르면 (4) 설립할  
 04 (1) 부조리 (2) 보편적 (3) 영구적

## 1 요약하며 읽기

### 개념 확인 문제

60쪽

- 01 요약 02 (1) ○ (2) ○ (3) × 03 ㉠ 04 ㉡ 05 단원명

- 01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02 (1)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요약을 해야 한다.  
 (2) 글의 구조를 시각화한 구조도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요약문을 쓸 때는 문단별 중심 내용들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들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03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없으면 중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요약의 규칙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 04 (보기)에서는 시와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비교·대조’이다.
- 05 학습을 위한 글인 교과서를 요약할 때는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명, 학습 목표, 진한 글자 등을 확인하며 중요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 활동 확인 문제

61~68쪽

- 01 남극과 북극의 (기후) 차이 파악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6문단 11 ㉢  
 12 ㉢ 13 ㉠ 14 시드볼트 15 ㉢ 16 ㉡ 17 ㉡  
 18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농약 및 살충제 사용 금지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헌법, 형법 27 ㉠

01 은지는 ‘나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남극과 북극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었’다고 하였고, 은지의 요약문은 남극과 북극의 기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였다. 따라서 은지는 남극과 북극의 기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02 은지가 요약한 글은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서술한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의 글로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오답 풀이** ① 요약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라도 반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하나만 제시하면 된다.

② 읽기의 목적에 따라 요약하는 것이므로 요약을 하다가 읽기 목적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요약할 때는 정리한 중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글에는 글의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 방식도 나타나므로 요약할 때는 내용 전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03 은지가 요약한 이 글의 ‘처음’ 부분은 1문단에 해당한다. 은지의 요약문을 확인해 보면, 은지는 1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이 두 지역은 ~ 갖고 있다.’ 부분을 선택하고, 이후 ‘두 지역’을 ‘남극과 북극’이라고 구체화시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은지는 1문단을 요약하면서 ‘지구에서 따뜻한 ~ 남극과 북극이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을 삭제한 까닭은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04 ㉡의 앞은 남극의 기후와 거주민, ㉠의 뒤는 북극의 기후와 거주민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에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 주는 연결어 ‘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

05 글의 구조도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글의 중심 내용과 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06 1문단에서는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문단에는 이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이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

**오답 풀이** ②, ③ 비교와 반복은 요약의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⑤ 1문단은 중심 내용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면 되므로 일반화나 재구성의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07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08 중심 내용을 요약할 때는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은 삭제하면 안 된다. ㉔은 4문단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 있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오답 풀이 ㉑, ㉒, ㉓, ㉔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덜 중요한 내용이거나 보충하는 내용이므로 삭제가 가능하다.

09 6문단의 '전 세계 국가~95,395점에 달한다.'로 보아 우리나라의 시드볼트에서는 전 세계 국가 또는 기관에서 맡긴 종자를 보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6문단의 '먼저 필요한 종자와 함께~영하 20°C의 보관소에 저장한다.' 부분에 시드볼트에서 종자를 보관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11 요약이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12 이 글은 시드볼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이다. 글의 '처음' 부분에서 기후 변화의 위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글쓴이의 제안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승민이의 요약문은 식물 종자 보존 기관에 대한 정보와 식물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승민이의 읽기 목적은 정보 전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4 ㉑이 포함된 문장은 시드볼트의 설립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고, ㉒이 포함된 문장은 시드볼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시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㉑, ㉒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시드볼트'이다.

15 ㉔의 내용은 시드볼트의 역할(의의)에 관한 것이므로 시드볼트의 종자 보관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 [A]의 중심 내용은 '꿀벌이 생태계(의 균형)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은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불필요한 단어이다.

17 [B]는 '꿀벌이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한 후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㉓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는 3문단이 아니라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㉔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은 3문단이 아니라 1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㉔ 꿀벌이 온도에 민감하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18 4문단의 '유럽에서는~금지하였고'를 통해 알 수 있다.

19 읽기의 목적에 따라 요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20 수지는 사라져 가는 곤충을 조사하고, 곤충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수지는 사라져 가는 곤충인 꿀벌의 멸종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이 글을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1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농약 및 살충제 사용을 금지한 것이나 '세계 꿀벌의 날'을 지정한 것은 꿀벌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해당한다.

22 요약문은 세부적인 정보는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야 하며(㉒), 문단별 중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중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요약해야 한다(㉔).

23 어렵거나 새로운 단어는 학습 과정에서 더 공부를 해야 할 요소일 뿐, 학습을 위한 글을 요약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24 이 글은 교과서이므로 단원명과 학습 목표에 따라 읽기 목적을 정해야 한다. 단원명이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다를까?'이고, 학습 목표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이므로, 공법과 사법의 특징과 차이를 아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목적이어야 한다.

25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다. 이로 볼 때 '소송법'은 ㉔에 들어 가야 한다.

26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일 경우 단어의 글자에 변화를 주어 강조한다. ㉑에서 '헌법'과 '형법'을 다른 단어와 달리 진한 글자로 표시한 것을 보니 이 단어가 핵심 단어에 해당한다.

27 ㉑의 중심 내용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私法)이라고 한다.'이다. 글에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므로 삭제(㉑)와 선택(㉒)을 적용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01 ① 02 ⑤ 03 (라) 04 ① 05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06 ④ 07 ④ 08 ⑤ 09 종자를 보존하여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모르는 종자를 연구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② 15 ㉠과 ㉡은 문단에서 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할 때 삭제한다.

- 01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 02 (가)를 통해 남극과 북극은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태양 에너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남극이 훨씬 춥다.'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고, (다)에서 '북극은 남극과 달리 주변의 여러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라고 하였다.  
 ③ (다)에서 북극에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북극은 '여름에는 영상 10°C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라고 하였다.

- 03 (라)는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이 지닌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은지의 읽기 목적은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라)의 내용은 요약문에 필요 없는 내용이다.

- 04 (나)와 (다)는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특징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는 분류·구분, ③은 묘사, ④는 비유, ⑤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다)에는 사용되지 않은 내용 전개 방식이다.

- 05 **서술형** (라)의 중심 내용은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를 <조건>에 맞게 정리한다.

채점 기준	배점
(라)의 중심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라)의 중심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라)의 중심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06 ㉢은 원주민이 없는 남극과 다르게 북극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담은 문장이다. 따라서 이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라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며 반복되는 내용도 아니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 07 이 글은 식물 종자를 저장, 보관하는 시설인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특징,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식물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식물 종자 보존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08 (마)의 중심 내용은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시드볼트는 종자를 보존하고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 09 **서술형** (나)에서 식물의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모르는 종자를 연구하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까닭 두 가지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까닭 두 가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까닭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서술했을 때	C

- 10 (다)의 '시드뱅크는 저온의 설비를 갖추어'로 보아, 저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드볼트가 아니라 시드뱅크임을 알 수 있다.

- 11 (나)에서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였을 뿐,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⑤는 요약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12 (가)는 꿀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국가의 노력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은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알맞다.

- 13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보는 것은 설득하는 글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와 같은 교과서는 학습 목표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특성에 맞게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 14 (다)를 통해 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는 '법', ㉡는 '국가', ㉢는 '개인'이 들어가야 글의 내용에 알맞다.

- 15 **서술형** (가)의 중심 내용은 '꿀벌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고, (다)의 중심 내용은 '공법과 사법의 차이'이다. 이로 볼 때 ㉠과 ㉡은 덜 중요한 내용이라서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알맞다.

채점 기준	배점
요약의 규칙과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요약의 규칙과 까닭 중 한 가지만 <조건>에 맞게 서술했을 때	B
요약의 규칙과 까닭 중 한 가지만 서술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C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개념 확인 문제

73쪽

01 ④    02 ①    03 내용 생성하기    04 ②

- 01** 논설문이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로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03**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글에 활용할 정보를 선별한다.
- 0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어떤 지식이나 대상에 관한 정보 등을 설명하거나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답 풀이** ① 수집한 정보들은 주제를 고려하여 서로 통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하여 출처를 축소하여 밝히면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모든 자료의 출처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참신성'이란 '새롭고 산뜻한 특성'인데 이를 기준으로 자료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료의 중요도는 주제를 뒷받침하는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활동 확인 문제

74~79쪽

01 ⑤    02 탈춤    03 ⑤    04 (사)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①,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탈춤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6 ⑤    17 ④  
 18 ②    19 남녀평등 → 남녀 불평등    20 ②    21 ②

- 01** 글의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02** '우리나라 탈춤이', '탈춤을 알리는 글은 어때?'라는 재우의 말에서 동아리 친구들이 글을 통해 설명하려는 대상이 '우리나라 탈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인정한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 보람 있을 거야.'라는 정윤의 말에서 글의 주제가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임을 알 수 있다.
- 03** ①을 보면 동아리 친구들은 탈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⑤에서는 탈춤에 관한 정보가 아닌, 여러 나라 전통문화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4** (사)는 국가무형유산 제1호인 '종묘제례악' 의식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뉴욕에서 호평을 받았음을 전하는 자료이다. 이 정보는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자료이다.
- 05** (나)와 (다)는 모두 탈춤이 다루고 있는 주제 의식(탈춤의 가치)에 대한 정보와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두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가 유사하므로, (나)와 (다)는 정보를 함께 정리하여 글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06** (라)는 안동 국제 탈춤 행사에서 본 탈춤의 공연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데,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정보는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보로 선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탈춤의 공연 방식은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② (라)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글의 전체 길이를 고려하여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면, 정보의 일부 내용을 선택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까닭으로 (라)를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글쓰기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라)의 내용은 전문가 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07 (바)의 자료는 탈춤 공연 영상을 다룬 매체 자료이므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체, 예를 든다면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㉔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정보를 전달하기에 알맞은 자료이다.

㉕ (나)에 뉴스 화면 일부가 제시되고 있지만, (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보는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춤 공연 영상이 담긴 (바)의 정보와 중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개념어 풀이

Q 매체란?

A 의사소통의 매개체, 즉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매체라고 한다.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이 있다.

08 정보의 내용이 비슷한 자료들이 여러 개 있다면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자료 가운데 더 정확하고 상세한 것을 선택하거나, 각각의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정보를 골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09 시청각 자료가 아니어도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면 글에 활용할 정보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인지 아닌지가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주제에 따라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개념어 풀이

Q 시청각 자료란?

A 시청각 자료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자료로 동영상, 텔레비전 방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 탈춤을 관람하는 관객의 주요 연령층에 대한 정보는 ㉗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㉑ ‘탈춤은 ~종합 예술이다.’에서 탈춤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㉒ ‘탈을 쓴 연기가~주제를 표현하고’에서 탈춤의 주제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㉓ ‘탈춤 공연에는 정식 무대가 필요 없고’에서 탈춤을 공연하기 위한 공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㉕ ‘탈을 쓴 연기가~사람들이 이들을 따른다.’에서 탈춤 공연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을 제시하고 있다.

11 내용 조직하기 과정은 선별한 정보 중 먼저 쓸 것과 나중에 쓸 것을 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글의 개요를 작성하며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은 표현하기, ㉒는 내용 생성하기, ㉓은 계획하기, ㉔는 고쳐쓰기 과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만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다룰 내용을 소개한다. 이 개요에서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의 소식을 전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다.

13 ㉑ ‘탈춤의 공연 비용’은 ‘중간 1’의 ‘탈춤의 뜻과 종류’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㉑ ㉒는 ‘중간 1’에서 다루려는 내용이 ‘탈춤의 뜻과 종류’인 것으로 보아 적절한 항목이다.

㉓ ㉔는 ‘중간 2’에서 다루려는 내용이 ‘탈춤 공연 방식과 특징’인 것으로 보아 적절한 항목이다.

㉕ ㉖는 ‘소통의 예술’, ‘지역 문화 정체성 형성’과 함께 ‘탈춤의 가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항목이다.

14 2문단을 통해 탈춤은 탈을 쓰고 추는 춤을 의미하며 탈놀이 또는 가면극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탈춤이 탈놀이, 가면극과는 구별된다는 내용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㉑ 2문단의 ‘탈춤은 지역마다 내용과 특색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는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㉒ 1문단의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무형유산이자 전통 공연 예술인 탈춤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㉓ 3문단의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㉔ 3문단의 ‘탈춤 공연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공터나 들만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춤을 출 수 있어서 정식 무대가 따로 없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3문단에서는 탈춤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탈춤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태도와 관련된 것은 바로 관객들이 탈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6 ‘초미’라는 말은 ‘매우 급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학교 신문의 예상 독자인 중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따라서 ㉗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도로 고쳐 씀으로써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7 2문단에서는 탈춤의 뜻, 그리고 탈춤의 지역별 이름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㉔는 외국인을 위한 탈춤 안내 책자에 관한 내용으로 2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즉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㉔는 삭제해야 한다.

18 4문단에서는 탈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 즉 탈춤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㉑, ㉓, ㉔, ㉕의 경우 탈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으로 4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㉒는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춤이 세계적 인정받을 까닭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9 바로 앞에 제시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문제가 되던'으로 보아 '남녀평등'은 잘못 쓰인 단어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의미의 '남녀평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20 ㉑은 지역마다 탈춤의 가면이 다양하여 그 수가 매우 많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4문단의 중심 내용인 '탈춤의 가치'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 오답 풀이** ㉑ ㉑에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㉓ ㉓은 학교 신문 독자인 중학생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㉔ ㉔이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아니다.  
 ㉕ ㉕에는 비유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정보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므로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글의 신뢰성이란 글의 내용이나 글에 사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을 말한다.

만점 대비 소단원 핵심 문제

81~83쪽

- 01 ㉓ 02 ㉔ 03 ㉑ 04 ㉕ 05 (다)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6 ㉒ 07 ㉓ 08 ㉕ 09 ㉒ 10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를 고려하면 ㉓는 적절한 내용, ㉕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㉒는 '중간 1'의 중심 내용과도 관련 없으므로 삭제한다.  
 11 ㉓ 12 ㉑, ㉓ 13 ㉔ 14 ㉑은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은 단어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로, ㉑은 문맥에 맞지 않은 단어를 '남녀 불평등'으로 고쳐 쓴다.

01 (다)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 해당한다.

02 재우의 '탈춤을 알리는 글은 어때?'와 정윤이의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 보람 있을 거야.' 등으로 보아 설명 대상은 우리나라 탈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㉑ 우리나라 탈춤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쓰는 글이기 때문에 글의 유형은 설명문이 적절하다.  
 ㉒ 민구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 보자.'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㉓ 정윤이가 '온라인 학교 신문 독자에게 세계에서 인정한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 보람 있을 거야.'라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는 학교 신문 독자이다.  
 ㉕ 재우의 '탈춤을 알리는 글은 어때?'와 정윤이의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 보람 있을 거야.' 등으로 보아 글의 주제는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가)의 동아리 친구들이 쓰려는 글은 '탈춤의 특징과 가치'를 주제로 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탈춤 공연 영상은 탈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글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다.

04 (나)와 <보기>는 모두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탈춤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㉑ (나)와 <보기>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㉒ (나)와 <보기> 모두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다.  
 ㉓ (나)는 TV 뉴스로 영상 매체 자료이다. 하지만 <보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문자로 된 자료이므로 영상 매체 자료가 아니다.  
 ㉔ (나)와 <보기>에서는 탈춤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05 **서술형** (다)에는 정보의 출처가 표기되지 않았다.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자료 활용 여부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다)의 자료 활용 여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다)의 자료 활용 여부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활용할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라)와 같은 글의 개요 작성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용 생성하기 중 정보 선별의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다.

**07** 탈춤 공연 영상은 ‘중간 2 탈춤 공연 방식과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하여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08**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매체 자료인지 아닌지가 정보 선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매체 자료가 아니라고 하여도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정보로 선정해야 한다.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선별하는 기준은 ‘주제를 뒷받침하는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이다.

**09** ‘중간 3’에 제시된 내용들은 탈춤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10** **서술형** ㉠ ‘탈춤의 공연 비용’은 ‘중간 1 탈춤의 뜻과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며,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바르게 판단하여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과 ㉡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바르게 판단하였지만,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과 ㉡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바르게 판단하였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1** (다)를 통해 탈춤은 탈을 쓴 연기와 6~10명의 악기 연주자가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를 통해 탈춤은 정식 무대가 따로 없으며, 공터나 들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지역별 탈춤의 이름과 종류이다. ㉢은 이런 (나)의 주요 정보를 시각화한 그림 자료이므로, 글에 추가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그리고 (다)에서는 탈춤의 공연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은 (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글에 추가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 탈의 제작에 관한 정보는 (가)~(라)에서 찾을 수 없고, 주제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 (나)에 제시된 외국인들을 위한 탈춤 안내 책자와 관련된 내용은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자의 표지 사진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 (가)에서는 탈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무형유산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탈춤에 관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일뿐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무형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리한 도표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13** ‘최근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기도 하였다.’는 탈춤의 뜻과 종류를 설명하는 (나)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14** **서술형** ㉦은 학교 신문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 ‘초미’가 사용되었고, ㉧은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남녀평등’이 사용되었으므로 고쳐 쓰는 것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 ㉧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 ㉧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 ㉧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안전 완성 대단원 종합 문제

84~91쪽

**01** ㉠ **02** ㉤ **03**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04** ㉢ **05** ㉢ **06** ㉤ **07** ㉣, ㉤ **08** 시드볼트에서 종자가 보관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하였다.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나)는 탈춤의 뜻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와 관련된 내용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삭제한다. **25** ㉠ **26** ㉡ **27** ㉣, ㉤ **28** ㉢ **29** ㉣

**30** ㉣

서술형 실력 올리기

**31** 남극은 대륙이므로 북극보다 훨씬 춥고 원주민이 없다. **32** (1) 종자의 수분을 낮춘다. (2) 종자를 블랙 박스에 밀봉하여 영하 20℃의 보관소에 저장한다. **33**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신문 독자들에게 탈춤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문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34** 이 글에서 ‘남녀평등’은 잘못 쓰인 단어이므로 ‘남녀 불평등’으로 고친다. 또한 ‘탈춤에서는 가면이~매우 많다.’는 이 글의 주제인 ‘탈춤의 가치와 거리가 먼 문장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01** (가)~(다)에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02** (라)에서 여러 개의 구체적 개념을 하나로 일반화하여 정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다)에서 ‘얼음이 되기까지는~보고 있다.’는 덜 중요한 내용인데 (라)에서 이를 삭제하고 정리하였다.

② (나)는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은지는 이를 고려하여 남극과 북극의 기후의 차이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③ 은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구조에 따라 '처음-중간-끝'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④ (다)의 '두꺼운~역할을 하고 있다.'에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라)에서 이를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03 서술형** ㉠에는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여 넣으면 된다. (가)의 중심 내용은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들어갈 (가)의 중심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에 들어갈 (가)의 중심 내용의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에 들어갈 (가)의 중심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4** 은지는 (다)의 중심 내용을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를 선택하여 ㉡으로 요약하였다. 이에 비해 <보기>의 민수는 여러 가지 세부 정보인 '상추, 오이, 토마토, 고추, 껌잎'을 하나로 묶어 '각종 채소'로 일반화하여 요약했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요약문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하기의 방법을 비교해 보고, 차이점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은지가 (다)를 ㉡으로 요약할 때 사용한 요약의 규칙과 <보기>에서 민수가 사용한 요약의 규칙을 파악하여 비교해 보면 된다.

**05** (나)의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를 통해 남극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의 내용에 맞게 요약하려면 ㉢는 '추워서 원주민이 없다.'로 정리해야 한다.

**06** (가)~(다)에는 '세계 꿀벌의 날'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으로, 우리나라와 북유럽 노르웨이에만 있다.'에서 시드볼트가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시드볼트에서 종자를 보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의 '먼저 설립된 노르웨이~저장하고 있다.'와 '그에 반해 우리나라~종자를 저장한다.'에서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의 시드볼트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07** (가)에서는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의 시드볼트와 우리나라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글로벌 시드볼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시의 방식으로 작물 종자의 구체적 예인 밀, 벼, 옥수수, 감자, 콩을 제시하고 있다. ④에서는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감과 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 ⑤에서는 예시의 방식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정 과일 섭취량을 어린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분석의 방식으로 사과와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② 정의의 방식으로 과일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구분·분류의 방식으로 계절별로 과일을 나누고 있다.

**개념어 풀이**

**Q 분석과 정의란?**

**A** '분석'은 하나의 대상,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이고,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 또는 용어가 지닌 개념을 밝혀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문단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선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가)와 같은 내용 전개 방식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08 서술형** <보기>는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보관되는 과정의 세부 정보들에 해당하는 '먼저 필요한 종자와~20°C의 보관소에 저장한다.'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여러 과정을 거쳐'로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를 요약할 때 사용한 규칙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나)를 요약할 때 사용한 규칙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나)를 요약할 때 사용한 규칙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9** (다)는 곤충의 하나인 꿀벌의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다. 따라서 곤충이 사라지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다)를 읽을 수 있다.

**10** (가)의 중심 내용은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으로, 노르웨이 시드볼트는 작물 종자를 저장하고, 우리나라 시드볼트는 야생 식물의 종자를 저장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중심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은 작물 종자의 구체적인 예로 문단에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다. 한편 (다)의 중심 내용은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 ㉤은 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

**11** 같은 글이라도 읽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고 요약하는 내용도 달라지므로,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읽기 목적을 정해야 한다.

**12** (가), (나)와 같은 교과서는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조도를 그리며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답 풀이** ① 단원명과 학습 목표에서 공법과 사법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② 교과서에서 진한 글자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글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요약의 방법을 파악하여 글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학습을 위한 글인 교과서를 요약하는 방법을 이해한 다음, 선지에 제시된 요약의 방법이나 규칙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13** (다)는 종자를 활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종자에는 미래의 가치가 숨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까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14** ㉠ ‘시드뱅크’는 ‘시드볼트’와 함께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종자를 보관하는 유일한 연구 시설이라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15** (가)에서 동아리 친구들은 온라인 학교 신문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글을 쓰기 위해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을 정하고 있다.

**16** 보고문이란 조사하거나 연구한 것의 내용이나 결과를 알리는 글로 답사 보고문, 관찰 보고문, 실험 보고문 등이 있다. (가)에서 동아리 친구들이 쓰려는 글은 탈춤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설명문이 알맞다.

**17**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을 골라야 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8** (나)에는 탈춤의 특징과 공연 방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탈춤의 특징과 가치’에 관한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릴 때도 문자 언어는 쓰인다.  
 ② 지나치게 전문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교 신문 독자는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인데,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볼 수 없다.  
 ③ 출처인 외교부는 신뢰할 만한 국가 기관이다.  
 ④ (나)에는 탈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19** 의식무란 종교 의례, 국가 행사 등 각종 의식에서 공연되는 무용으로 탈춤은 의식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자료이다.

**20** 글에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며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즉, 내용이 알차고 풍부한 글을 쓰기 위해, 글에 담을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21** (가)는 글의 개요로,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글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말한다.

- 오답 풀이** ①은 기사문, ②는 고쳐쓰기, ③은 ‘내용 생성하기’ 과정 가운데 정보 선별하기, ⑤는 설명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2** 지역별 탈춤의 이름과 종류에 관한 지도 자료이므로 글의 ‘중간 1-(2)’ 부분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23** 주제를 수정하며 글을 쓰면 하나의 글에 여러 개의 주제가 생기거나, 글의 흐름이 전하려는 주제와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하나로 정하고, 이 주제에 맞게 정보를 수집, 선별, 조직하여 글을 써야 한다.

**24** **서술형** (나)의 ‘최근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기도 하였다.’는 (나)의 중심 내용인 ‘탈춤의 뜻과 종류’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나)에서 고쳐 써야 할 점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나)에서 고쳐 써야 할 점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나)에서 고쳐 써야 할 점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5 ㉠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은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적절한 사례이다. 오히려 ‘탈춤 공연의 현대화 방법’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교체 내용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작성된 개요가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항목은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서로 연관성 있게 바르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6 (가)~(마)에서 탈춤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은 (라)에서, ㉡은 (나)에서, ㉢는 (다)에서, ㉣는 (다)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이다.

27 (라)는 탈춤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라)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의 영상을 자료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는 우리나라 탈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독자에게 탈춤 공연을 관람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우리나라 탈춤의 소중함일뿐, 탈춤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별 탈춤 공연장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의 누리집을 자료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가)~(마)에서 활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제시하여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29 ㉠은 (나)의 중심 내용인 ‘탈춤의 뜻과 종류’와 관련이 없고, ㉡은 (라)의 중심 내용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탈춤’과 관련이 없다. 이로 볼 때 ㉢과 ㉣ 모두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쳐 써야 한다.

30 (다)의 ‘공터나 들판만 있으면 얼마든지 탈춤을 출 수 있어 서’로 보아, 탈춤은 실내가 아닌 바깥, 즉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야외에서 이루어 지므로’ 정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 ‘초미’는 학교 신문 독자들에게 어려운 표현이므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탈춤은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유산이 아니라 무형유산이므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혐의’는 학교 신문 독자들에게 어려운 표현이므로 ‘좁은 의미’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작성한 글의 표현 중에서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적절하게 고쳐 쓰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단어나 문장의 표현이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어야 하며, 고쳐 쓴 표현을 해당 부분에 넣어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해 봐야 한다.

**서술형 실력 플러스**

31 제시된 글에서 중요한 내용은 ‘남극이 훨씬 춥다.’,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므로’, ‘원주민이 없다.’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종합하여 <조건>에 맞게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의 중심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의 중심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의 중심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32 시드볼트에 저장된 종자가 보관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보기>의 (1)에는 ‘다음으로 종자를 저온에서 ~ 낮추는 작업을 거친다.’의 내용을, (2)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종자의 소유자를 ~ 20°C의 보관소에 저장한다.’의 내용을 <조건>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1), (2)에 들어갈 종자의 보관 과정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1), (2)에 들어갈 종자의 보관 과정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1), (2)에 들어갈 종자의 보관 과정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33 ‘정보를 전달하는 글’ 등에서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 ‘탈춤을 알리는 글은 어때?’, ‘세계에서 인정한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 등에서 글의 주제는 ‘탈춤의 특징과 가치’, 글의 유형은 ‘설명문’, ‘온라인 학교 신문 독자에게’ 등에서 예상 독자는 학교 신문 독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동아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위해 계획한 내용들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동아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위해 계획한 내용들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동아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위해 계획한 내용들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34** ‘탈춤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문제가 되던 남녀평등’에서 ‘남녀평등’은 ‘남녀 불평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 마지막 부분의 ‘탈춤에서는~그 수가 매우 많다.’ 문장은 글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이므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3 능동적인 언어생활

대단원 필수 어휘 미리 보기 94~95쪽

- 01 (1)-㉠ (2)-㉡ (3)-㉢ (4)-㉣ (5)-㉤
- 02 (1) 품사 (2) 가변 (3) 수식하다
- 03 (1) 불변 (2) 관점 (3) 담화 (4) 의도
- 04 (1) 단어 (2) 추론 (3) 의도

#### 1 추론하며 듣기

개념 확인 문제 96쪽

- 01 문장(발화)    02 가치    03 ㉡    04 ㉠

- 01 담화는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로, 발화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 02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화자, 청자, 전하는 내용, 그리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즉 맥락이 있다.
- 03 담화의 주제는 상황 맥락의 하나로, 주제를 고려하며 들어야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추론하며 듣기가 담화의 주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듣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04 언어적 표현이란 화자가 담화에서 사용한 단어나 문장과 같은 실제 언어적 표현이다.

활동 확인 문제 97~103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③
- 08 준언어적 표현    09 ③    10 ⑤    11 ⑤    12 ①    13 정보 전달
- 14 ①    15 ⑤    16 ①    17 ②    18 ②    19 ⑤
- 20 ④    21 ③    22 ③    23 ④    24 ①

**01** (가)와 (나)는 같은 말이지만 말에 담긴 의도는 다르다. (가)와 (나)처럼 말은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추론하며 듣기를 통해 담화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내용(의도)을 미루어 짐작하며 들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숨길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추론하며 듣기가 필요한 까닭으로 보기 어렵다.

② 추론하며 들을 때 화자의 동작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것이 추론하며 듣기가 필요한 궁극적인 까닭은 아니다.

④ 청자가 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해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02** 화자인 효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며 청자인 친구에게 칭찬의 의도로 말을 건네고 있다. 한편 제시된 장면만으로 담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보아 담화 시간은 밤이 아니라 오전이나 오후일 것이다.

**03** (나)의 효진이는 자신의 수첩에 그림을 그린 동생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를 “네가 그린 거니?”라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위협적인 동작이나 짜증을 내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4** 효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수첩을 더럽힌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로 “네가 그린 거니?”라고 말하고 있다.

**05** 청자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화자의 목소리 크기를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06**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에서 아빠의 찡그린 표정(비언어적 표현)과 ‘너무’라는 표현(언어적 표현)을 통해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니?”라는 아빠의 말에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민이는 이러한 아빠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다.

**07**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대화에서 시간은 식사를 끝낸 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아빠의 말에 담긴 의도, 즉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중요한 상황 맥락이라고 할 수 없다.

**08** 화자의 목소리 크기, 말투, 말의 속도 등과 같이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09** 상황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화자, 청자, 전달 내용, 주제 등을 말한다. 발화의 개수가 많고 적은 상황 맥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담화를 나누는 공간이나 할머니의 언어적 표현과 표정 등을 고려했을 때, 할머니는 학생에게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학생이 할머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땀을 닦으며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표정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12** 이 만화에서 할머니의 연세와 건강은 확인할 수 없으며, 할머니의 발화 의도를 추론할 때 고려할 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할머니가 땀을 닦는 행동, ③ 할머니가 곤란해하는 표정, ④ ‘이 동네가 처음’이라는 말, ⑤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공간 등은 모두 담화에서 할머니의 의도를 추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13** 뉴스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담화이다.

**14** 이 뉴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국가유산청은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을 늘려 갈 계획이라고 하며, 국가유산청의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고공의 ‘장면 해설 서비스’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뉴스는 ‘장면 해설 서비스’의 시행 관련 정보를 전하며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정보 전달의 담화이다.

**15** 앵커는 뉴스가 지닌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고공의 ‘장면 해설 서비스’ 시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공 방문을 통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고공에서 시행되는 ‘장면 해설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에 화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말할 것이지, 고공 방문을 통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려고 한 말로 보기 어렵다.

②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관련된 내용은 앵커가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③ 앵커는 4대 궁에 장애인을 위한 장면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고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장애인을 위한 고공의 ‘장면 해설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뉴스에서 앵커가 전달하려는 정보는 국가유산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16 이 뉴스를 통해 영상 해설사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영상 해설사가 시각 장애인에게 고궁의 건물과 물 건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③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수어 설명의 활용으로 청각 장애인도 고궁에 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 해설에 대해 시각 장애인은 전과 달리 처음 와 본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영상 해설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고궁의 여러 모습과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은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을 점점 더 늘려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17 ‘친절하다’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 해설사의 설명을 ‘친절함’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고궁의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기자의 긍정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다.

18 뉴스에 제시된 시각 장애인 ○○○ 씨와 청각 장애인 □□□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나 ‘장면 해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장면 해설 서비스’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⑤ 인터뷰 내용만으로 장애인들이 고궁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19 이 연설에서 화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달라이 라마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20 이 연설에서 화자는 청소년들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연설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교육자들(어른들)에게 청소년들이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청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연설에서는 ‘왜 그래야 하는 거죠?’와 같은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③ 이 연설의 화자는 어린이(학생)이며,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연설 장소에 모인 다수의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⑤ ‘다음번에 저 같은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신다면 ~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등에서 화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21 이 연설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연설에서 화자가 고압적인 태도, 즉 남을 마구 억누르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연설에서 화자의 비현실적 경험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연설에서 화자가 여러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연설에서 화자가 자신의 바람을 청중에게 반복해서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2 연설은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 등을 설득하기 위한 담화이다.

**오답 풀이** ① 연설은 전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② 연설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④ 연설은 화자와 청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다 화자가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 등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말하기다.

⑤ 연설은 주로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는 아니다.

23 이 연설에서는 청소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연설의 주제는 현재에 충실한 청소년의 삶을 위한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이 연설의 화자는 어린이(학생)이며, 청자는 교육자(어른들)이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보다 어리다.

⑤ 이 연설은 공개적인 장소인 교육 기업에서 개최한 행사장에서 진행되었다.

24 이 연설의 화자는 청소년들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오늘(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③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가 현재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미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화자의 가치관으로 보기 어렵다.

④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든 현실을 견뎌 내야 한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화자의 가치관으로 보기 어렵다.

⑤ ‘개인보다 다수가 행복한 미래’와 관련된 내용은 연설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의 가치관으로 보기 어렵다.

개념어 풀이

Q 폄하란?

A 폄하는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의미로, 원래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01 ② 02 ⑤ 03 ① 04 ⑤ 05** ‘오후 4시,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상황 맥락, 할머니의 땀을 닦는 동작과 힘들어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할머니의 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06 ③ 07 ④ 08 ② 09**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영상 해설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하였고,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스마트폰 수어 설명을 제공하였다. **10 ②**

**01** (가)와 (나)의 청자는 화자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다. 즉, (가)와 (나)의 청자가 상황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2**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점과 아빠의 찡그린 표정(비언어적 표현), ‘너무’라는 표현(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해야 아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03** 제시된 상황 맥락으로 보아 아빠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니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나)에서 학생이 대화의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학생에게 말할 건 의도, 즉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할머니에 대한 학생의 관심 여부는 알 수가 없다.  
 ② 할머니가 언어 표현을 잘못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학생이 할머니의 말을 겉으로 드러난 의미로만 받아들였을 뿐, 숨겨진 의도를 추론하며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③ 학생이 할머니와 처음 만나 어색하더라도 상황 맥락을 고려했다면 할머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④ 주변 소음 여부는 (나) 장면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05** **서술형**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화자가 사용한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해서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나)의 학생 역시 할머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후 4시, 버스 정류장 앞’이라는 상황 맥락과 땀을 닦으며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표정 및 동네에 처음 왔음을 알리는 할머니의 말 등을 고려하여 발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할머니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할머니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할머니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이고, (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이다.

**07** 추론하며 듣는 것과 설득의 근거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화자가 설득하려는 내용의 근거는 화자가 마련하는 것이고, 청자는 이를 상황 맥락과 화자가 사용한 표현을 고려하여 추론하여 듣는 것이다.

**08** (가)의 뉴스에서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 해설 서비스, 즉 고궁의 ‘장면 해설 서비스’의 효과와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총 두 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였다.  
 ③ 장애인을 위한 영상 해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기자의 의도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⑤ 장애인과의 인터뷰에는 국가유산청의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다.

**09** **서술형** ‘서울 경복궁 등~도입됐습니다.’ 부분을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 해설 서비스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작년부터 활용돼 왔습니다.’ 부분을 통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수어 설명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고궁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고궁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고궁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0**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데에서 화자는 ‘지금’, 즉 ‘현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 개념 확인 문제

107쪽

01 품사 02 ㉓ 03 (1)-㉠ (2)-㉠ (3)-㉠ 04 ①

- 01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이다.
- 02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03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나눌 수 있고,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단어가 지닌 공통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 04 <보기>의 ‘얼굴, 친구, 노래, 평화’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이다.

### 활동 확인 문제

108~120쪽

- 01 ㉓ 02 ㄱ, ㄴ 03 ㉓ 04 ㉠ 05 (1) 지호, 달리기, 시합 (2) 셋째 (3) 들어왔다 06 ① 07 ㉓ 08 ㉓
- 09 ㉠ 10 ㉓ 11 ㉠ 12 그 13 ㉓ 14 ① 15 ㉓
- 16 ㉠ 17 ㉓ 18 ㉠ 19 ㉓ 20 (1) 먹다, 자다 (2) 쉽다, 힘들다, 푸르다 21 ① 22 ① 23 ㉓ 24 ㉓ 25 ㉓
- 26 ㉓ 27 ① 28 ㉓ 29 ㉠: 부사, ㉡: 부사, ㉢: 관형사
- 30 ㉓ 31 ㉠ 32 ㉠ 33 ㉓ 34 ㉓ 35 ①
- 36 감탄사 37 ㉠ 38 ㉓ 39 ㉓ 40 ㉠
- 41 조용히 하자 42 ㉠ 43 ㉠ 44 ㉓

- 01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는데, 가변어에는 용언(동사, 형용사)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 ‘놀랐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놀랐는지’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02 ‘첫째’, ‘우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놀다’, ‘푸르다’, ‘예쁘다’는 각각 ‘노니’, ‘푸르니’, ‘예쁘니’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03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아주’

는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즉 용언을 꾸며 주는 수식언의 기능을 하고 있다.

- 04 ㉠ ‘예쁜(예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 ‘피었다(피다)’와 ㉢ ‘부린다(부리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이다.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와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활짝’은 동사 ‘피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 ㉤ ‘잘’은 동사 ‘부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부사, 관형사는 문장에서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 수식언이라고 한다.

- 05 <보기>에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는 ‘지호, 달리기, 시합’이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는 ‘셋째’이다. 그리고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는 ‘들어왔다’이다.

- 06 ‘영양’은 뒤에 오는 동사 ‘울었다(울다)’를 꾸며 주는 단어로 부사에 해당한다. 부사는 문장에서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 ‘책’, ‘사과’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하고(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 ‘하고’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접속 조사)로, 문장에서 ‘친구’와 ‘나’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 개념어 풀이

#### Q 접속 조사란?

A 접속 조사란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로, ‘하고’, ‘와’, ‘과’, ‘나’, ‘랑’ 따위가 있다.

- 07 ㉢ ‘함께’는 동사(용언)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순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 ‘준수’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 ‘큰’의 기본형은 ‘크다’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 ‘하냐’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 ‘사서’의 기본형은 ‘사다’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08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09 ‘새’는 명사 ‘신’을 꾸며 주는 단어(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 ‘밭’은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 ㉤ ‘가을’, ‘노력’, ‘삶’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10 ③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이지 않았다. ‘목수’, ‘집’은 모두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인내심’, ②의 ‘우애’, ④의 ‘평화’, ⑤의 ‘해방감’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11 ‘이것’, ‘그’, ‘이곳’, ‘거기’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이중 ‘거기’는 주로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상태’가 아니라 ‘장소’를 대신 나타낸다.

12 ‘그’는 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이곳’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그리고 ‘표정’은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따위의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뜻하는 명사로,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13 ③의 ‘물건’과 ‘동생’은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참고로 ③은 ‘물건(명사)+은(조사) 동생(명사)+만(조사) 찾을(동사) 수((의존) 명사) 있다(형용사).’로 분석할 수 있다.

14 ① ‘그’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② ㉠ ‘아들’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 앞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아니다.

③ ㉡ ‘다’는 부사로,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수사)가 아니다.

④ ㉢ ‘성공하여’의 기본형은 ‘성공하다’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지,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수사)가 아니다.

⑤ ㉣ ‘많은’의 기본형은 ‘많다’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지, 특정한 동작을 지시하는 말이 아니다.

15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문장에 쓰인 ‘첫째’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수사)가 아니다.

②의 ‘하나’, ③의 ‘셋’, ④의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수사)이다.

**Tip**

**수사의 종류**

**수사**

-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예** 하나, 둘, 셋...
-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 **예** 첫째, 둘째, 셋째...

16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는 체언으로서 문장 안에서 몸체의 역할을, 즉 주어와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수사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② 수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용언(동사, 형용사)이다.

③, 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며 뒷말이나 명사(체언)를 꾸며 준다면 수사가 아니라,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개념어 풀이**

**Q 수 관형사란?**

**A** 수 관형사란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따위이다. 수 관형사와 수사는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유사해서 혼동하기 쉽다. ‘일, 이, 삼...’, ‘첫째, 둘째, 셋째...’, ‘한두째, 두어째, 서너째...’ 등과 같은 단어는 수사와 수 관형사로 모두 쓰이는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몸체 기능을 하면 수사이고, 체언을 꾸며 주면 수 관형사이다. 수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예** · 나는 숫자 일을 좋아한다. → 수사

· 그는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 수 관형사

17 ‘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로, 구체적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정물’은 ‘과일, 꽃, 화병 따위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들을 놓고 그린 그림’을 뜻하며, 구체적 대상 중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명사)이다.

② ‘이곳’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③ ‘사람’은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모여’의 기본형은 ‘모이다’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8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몸체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 ④에서 설명하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독립언으로 감탄사가 이에 속한다.

19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20 ‘먹다’, ‘자다’와 같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 하고, ‘쉽다’, ‘힘들다’, ‘푸르다’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21 ‘읽다’는 ‘글이나 글자를 보고 소리 내어 말로써 나타내다’,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등을 뜻하는 단어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22 ‘예뻐졌구나(예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② '한다(하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③ '날고(날다)', '있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가지(가다)', '말고(말다)'와 '앉아(앉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⑤ '들으며(듣다)', '운동하는(운동하다)', '좋아한다(좋아하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23** 동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다르게 문장에서 쓰일 때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관형사는 수식언이다.  
 ②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③ 동사는 어간에 '-았-' 등을 붙여 과거를 표현한다.  
 ④ 동사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Tip**

**동사의 서술적인 기능**

동사의 기능	동사는 형용사와 함께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함.
--------	----------------------------------

→ 용언(동사, 형용사)은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는 기능을 함.

**개념어 풀이**

**Q 어간과 어미?**

**A** 어간은 용언(동사, 형용사) 및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며, 동사 '먹다'의 '먹-',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이에 해당한다.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말하며, '먹다'의 '-다', '이다'의 '-다'가 이에 해당한다. '먹다'는 '먹고, 먹지, 먹어서, 먹으므로'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

**24**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형태를 바꾸었을 때 어색한 것이 있다.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으면 어색하다. ⑤의 '작다', '예쁘다', '푸르스름하다'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로 현재형으로 수정하면 어색하다.

- 오답 풀이** ① '하늘'은 명사, '높다', '빨갈다'는 형용사이다.  
 ② '높다', '듣다', '즐기다'는 동사이다.  
 ③ '셋'은 수사, '구름'은 명사,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다.  
 ④ '타다', '구르다'는 동사이고, '슬프다'는 형용사이다.

**25** '자다'는 동사이므로 현재형 어미 '-니다'의 형태 변화가 어색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형용사 '예쁘다'는 청유형을 쓸 수 없으므로 '예쁘자'는 어색한 표현이다.  
 ② 형용사 '자유롭다'는 청유형을 쓸 수 없으므로 '자유롭자'는 어색한 표현이다. '자유로워지자'로 써야 한다.  
 ③ 형용사 '건강하다'는 명령형을 쓸 수 없으므로 '건강하세요'는

어색한 표현이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 건강히 계십시오'로 써야 한다.

④ 형용사 '조용하다'는 청유형을 쓸 수 없으므로 '조용하자'는 어색한 표현이다. '조용히 하자'로 써야 한다.

**Tip**

**형용사의 활용**

-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 함께 쓸 수 없음.  
**예** 예쁘다, 예뻐라, 예쁘자 (X)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하)려고', '-고자', '-기 위해' 등은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없음.(어미 '-기'와 동사 '위하다'의 활용형 '위해'가 함께 쓰임.)  
**예** • 그녀는 예쁘기 위해 운동을 한다. (X)  
 → 그녀는 예뻐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  
 '예쁘-+-어(어미)+-지다(보조 동사)
- 저는 예쁘려고 살을 빼요. (X)  
 → 저는 예뻐지려고 살을 빼요.  
 '예쁘-+-어+지-+-려고(어미)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은 형용사가 어미를 활용할 때 제약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함.

**Tip**

**'크다'가 동사?**

'크다'는 '눈이 크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지만,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형용사에 붙을 수 없는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모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오이가 잘 크다', '옥수수야, 잘 커라.', '잘 먹고 잘 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6**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어떤'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27** '그냥'은 형용사 '좋아요(좋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②의 '맨', ③의 '새', ④의 '옛', ⑤의 '흰'은 명사 '처음', '책', '추억',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8**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로,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부사는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말을 꾸며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부사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②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③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감탄사이다.  
 ④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단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29** ㉠ '빨리'는 뒤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 '아주'는 형용사 '쉽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모든'은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30 '옛'은 체언 '사진'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①의 '여전히', ②의 '열심히', ③의 '활짝', ④의 '매우'는 모두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31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①의 '세', ③의 '여섯' ④의 '네', ⑤의 '한'은 모두 체언 '사람', '명', '장', '사람'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32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 앞에서 뒷말을 꾸며 주므로, 뒷말에 붙어 쓰인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 부사는 문장에서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 수식언이라고 한다.

③ 수 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낸다.

④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 줄 때도 있다.

⑤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관형사,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한다.

33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한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②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34 <보기>는 보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연주도'에서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열쇠로'의 '로'는 어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문을'의 '을'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② '친구가'의 '가'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④ '식사를'의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 '동네에서'의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잔치를'의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Tip**

**조사의 종류는?**

조사는 기능과 의미에 따라 '이/가', '을/를'처럼 문법적인 관계(자격)를 나타내는 격 조사, '도', '만', '까지'처럼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과/와', '랑'처럼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 나눌 수 있다.

35 ㄱ의 주어는 '지수가'이고, '동생'은 목적어이다.

**오답 풀이** ② ㄴ의 주어는 '동생'이고, 목적어는 '지수'이다.

③ ㄷ에서 '동생'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ㄱ의 '가', '을', ㄴ의 '이', '를', ㄷ의 '가', '만'은 모두 조사인데 조사는 앞말에 붙어 쓰인다.

⑤ ㄱ에서 '지수가'의 '가'는 주격 조사, '동생'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ㄴ에서 '동생'의 '이'는 주격 조사, '지수'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ㄷ에서 '지수가'의 '가'는 주격 조사이다. 이 조사들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Tip**

**격 조사의 종류**

주격 조사	이/가, 게서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서, 에, 에게, 게		
호격 조사	아/야	서술격 조사	이다		

→ 격 조사는 앞말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줌.

36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감탄사이다.

37 ①의 '앗', ②의 '으악', ③의 '아이고', ⑤의 '우아'는 모두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지만, ④의 '이봐'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38 ㉠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랐을 때 내는 감탄사이고, ㉡ '여보세요'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 감탄사이다.

39 '부지런하다'는 형용사로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런데 <보기>의 문장은 형용사 '부지런하다'가 '부지런해라'라는 명령형으로 쓰여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부지런하다'는 '부지런하겠다' 등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② <보기>는 형용사 '부지런하다'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어색한 문장이지만, 인용하기에 어색한 표현은 아니다.

④ 용언은 활용형에 따라서 서술어는 물론 관형어, 부사어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단, 형용사는 어미 활용의 제약이 따른다.

⑤ 형용사는 '부지런하다'와 같이 현재형 어미 '-니다/-는다'가 결합할 수 없고, '부지런하다'와 같이 기본형으로 현재를 나타낸다.

40 ④의 문장은 품사가 모두 바르게 쓰였다.

**오답 풀이** ①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 '-니다/-는다'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 '예쁘다'는 '예쁘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 ② 형용사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기쁘자'는 동사 '기뻐하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 ③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으므로 관형사 '옛'은 명사 '예'로 바꾸어 '예부터'라고 표현해야 한다.
- ⑤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으므로 '첫'에서 조사 '의'는 삭제하고 관형사 '첫'만 사용하여 '첫 만남'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 41** '조용하자'의 기본형은 '조용하다'이며, 이 단어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을 쓸 수 없으므로 '조용하자'는 '조용히 하자'로 고쳐 써야 한다.
- 42** '반짝반짝'은 동사 '빛나고(빛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온갖'은 명사 '별레'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43**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부사이다. 문장에 부사를 사용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꾸며 주는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된다.
- 44** 명사를 주로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면, 군더더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만점 대비 소단원 핵심 문제

122~125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너무'는 용언(서술어)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부사)이고, '앉았다'는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동사)이다. **07** ①   **08** ①
- 09** ②   **10** ⑤   **11**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세'는 체언(명사)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2** ②   **13** ③   **14** '다섯'과 '네'는 모두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면서 체언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15** ④   **16** ③   **17** ①   **18** ②
- 19** ①   **20** ⑤   **21** ④   **22** ①   **23** ④

- 01** 품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를 말한다. 즉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불변어와 가변어의 분류 기준은 '의미'가 아니라 '형태'이다.  
 ③ 품사의 분류 기준에 단어의 구성 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품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⑤ 품사의 분류 기준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품사는 형태, 기능과 함께 의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 02** (가)의 '동생'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나)의 '입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입고'와 같이 형태가 변하므로 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의 변화 여부이다.

- 03** (보기)에서 '물, 어머니, 자주, 현'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맴다, 크다, 출다'는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04** '나오지(나오다)'는 '일정한 목적으로 어떠한 곳에 오다'의 뜻을 지닌 단어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와 관련된 설명이므로 ⑤의 분류 내용은 알맞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미경', '준수'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이다.  
 ②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이다.  
 ③ '몹시'는 형용사 '아파서'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④ '아파서(아프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이다.

- 05** '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착하게 지내자'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자신에게', ② '짓궂게', ③ '장난을 치는', ⑤ '라고'는 모두 바르게 쓰인 표현으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 06** **서술형**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너무'는 부사로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그리고 '앉았다'는 동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품사 종류와 기능을 <조건>에 맞게 서술했을 때	A
두 단어 중 한 단어의 품사 종류와 기능만 <조건>에 맞게 서술했을 때	B
두 단어 중 한 단어의 품사 종류와 기능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07** (가)와 (나)로 보아,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인 대명사는 글(문장) 속에 대신 나타내는 단어가 미리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의 '이것'도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인식된 대상으로 봐야 한다.

- 오답 풀이** ②, ③, ④ 대명사가 대신 나타내는 것은 대상의 이름이다. 감탄사, 수사, 관형사를 대신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대명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나, 이것이 대명사가 쓰이는 조건은 아니다.

- 08** ㉠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몸체의 기능을 한다(ㄴ).  
**오답 풀이** ㄷ.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말은 용언인데, 수사는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다.  
 ㄹ.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다.

**09** 대명사와 관형사는 형태가 같은 것이 있는데 대상을 대신 하며 조사가 결합하지만 체언을 수식하지 않으면 대명사이고, 대상을 대신하며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가리키거나 수량을 나타내면서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이다. ㉠ ‘그’는 앞에 제시된 ‘노인’을 대신하며 조사 ‘는’이 결합되었으며 체언을 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이고, ㉡ ‘그’는 세잔이 바라본 사물의 모습을 대신하면서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뒤에 오는 체언 ‘모습’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Tip**

대명사와 관형사 중 조사와 결합하는 것은?

대명사와 관형사의 조사 결합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이므로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음.
-----------------	---

→ 대명사와 관형사를 구분할 때는 조사의 유무, 수식의 유무를 판단함.

**10** <보기>의 ‘그곳’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인데, 글 속에 ‘그곳’이 어디인지 미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11** **서술형** 품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ㄱ의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ㄴ의 ‘세’는 뒤의 체언(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품사를 비교하여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두 단어의 품사를 비교하여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두 단어의 품사를 알맞게 비교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2** ‘부러져(부리다)’, ‘들으게요(듣다)’, ‘공부할게요(공부하다)’는 모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이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동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 등의 다양한 활용형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 없다. 따라서 동사는 다양한 어미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서술형** ‘다섯’은 체언(명사) ‘개’를 꾸며 주고 있으면서 그 수량이 다섯임을 나타내고 있고, ‘네’는 체언(명사) ‘차루’를 꾸며 주고 있으면서 그 수량이 넷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섯’과 ‘네’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면서 수량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품사와 특성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두 단어의 품사와 특성 중 하나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B
두 단어의 품사와 특성 중 하나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C

**15**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말은 용언이고,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은 부사에 해당한다. ㉠의 ‘아직’은 형용사 ‘어려서(어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 ‘무슨’은 명사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누구’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이다.  
 ㉢ ‘한두’는 명사 ‘마디’를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Tip**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란?

대명사에는 부정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로, ‘아무’, ‘누구’, ‘아무개’ 등이 해당한다.

**16**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주로 부사를 쓴다. 제시된 글에서 부사는 ‘아주아주’, ‘너무너무’, ‘꼭꼭’, ‘썩썩’, ‘썩썩’ 등이 해당된다.

**17** ‘부르자’는 기본형이 ‘부르다’인 동사로, 동사는 청유형이 쓰일 수 있으므로 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 ‘예쁘려고’의 기본형 ‘예쁘다’는 형용사로,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고’와 함께 쓸 수 없다. 형용사 ‘예쁘다’를 ‘예쁘-+-어+-지다(동사)’로 동사를 만든 뒤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고’를 붙여 ‘예쁘지려고’로 써야 바른 표현이다.  
 ㉢ ‘알맞는’의 기본형 ‘알맞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은 쓸 수 없고, ‘-은’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알맞은’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상태를 가리키므로 ‘있는다’는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  
 ㉥ ‘옛부터’의 ‘옛’은 관형사로 ‘부터’라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예부터’로 고쳐 써야 한다.

**18**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격 조사)을 하거나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보조사)을 한다.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격 조사로,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19 ‘토끼만’에서 ‘만’은 다른 동물이 아닌 오로지 ‘토끼’만 거북이가 이겼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그도’의 ‘도’는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그’도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20 ‘하늘이여’는 명사 ‘하늘’에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 ‘이여’가 붙은 것이므로 ‘명사+조사’의 구성이다. 그러므로 ⑤에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야’는 느낌(칭찬)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아이쿠’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아니요’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④ ‘글쎄’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1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아무렴’은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세상에’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예구머니’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22 명사 위주의 전달 글은 전달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오답 풀이** ② 부사를 많이 사용하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관형사,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동사, 형용사가 명사화된다고 하여 내용이 딱딱해지는 것은 아니다.  
 ④ 수식언(관형사, 부사)이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용이 진지하고 엄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⑤ 명사를 나열할 경우 산만함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23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므로 어미가 붙을 수 없다. 또한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만점 완성 대단원 종합 문제

126~133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가)는 화자가 놀라는 표정으로 보아 청자(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놀라는 마음을 표현한 의도이고, (나)는 화자가 화가(짜증)이 난 표정으로 보아 자신의 수첩을 더럽힌 청자(동생)를 야단치려는 의도이다. 06 ③  
 07 ③ 08 ⑤ 09 ② 10 ⑤ 11 기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기자는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밑줄 친 단어는 세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영수’는 명사, ‘빨간’, ‘노란’은 형용사, ‘먹었다’는 동사이다. 17 ② 18 ④ 19 ④ 20 ① 21 ② 22 ③

23 ① 24 ④ 25 ③ 26 ④ 27 ㄱ은 선생님께서 오직 민수만 격려했다는 의미이고, ㄴ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민수도 격려했다는 의미이며, ㄷ은 선생님께서 민수부터 격려를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세 문장의 의미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만’, ‘도’, ‘부터’와 같은 조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8 ⑤

29 ③ 30 ③

서술형 실력 테스트

31 교육자들이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 아빠의 찡그린 표정, “너무 크지 않니?”라는 아빠의 언어 표현 등으로 보아 아빠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니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말하였는데 정민이는 이러한 아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바르게 대답하려면 정민이는 ‘텔레비전 소리가 많이 큰 가 봐요. 소리를 좀 줄일게요.’라고 말해야 한다.

33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가다’, ‘가니’, ‘예쁘다’, ‘예쁘니’와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그런데 동사는 ‘간다’, ‘가라’, ‘가자’, ‘가려고 한다’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예쁘다’, ‘예뻐라’, ‘예쁘자’, ‘예쁘려고 한다’와 같이 형태를 바꾸었을 때는 어색하므로 형태를 바꾸는 것에 제약이 있다.

34 (가)와 다르게 (나)는 농민들에게는 오직 수어가 유일한 모국어 같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왜냐하면 격 조사 ‘가’ 대신에 문장에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01 담화에서 화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청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내용(화자의 의도)을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0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청자는 화자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화자의 말투나 목소리의 크기(준언어적 표현), 화자의 표정이나 동작(비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하지만 화자의 성격이나 외모는 상황 맥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3 (가)와 (나)의 “네가 그린 거니?”는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도 상황 맥락(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화자와 청자, 전달 내용 등)에 따라서 의미(화자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된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와 (나)에 쓰인 언어적 표현은 “네가 그린 거니?”로 둘 다 명확하다.

② (가)와 (나)의 대화 상황을 통해서 화자와 청자의 평소 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④ (가)와 (나)에는 화자의 표정, 동작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04** 더럽혀진 수첩, 화가 난 화자의 표정, 색연필을 들고 있는 남자 어린이 등으로 보아, (나)는 효진이가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수첩을 더럽힌 동생에게 야단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효진이의 밝게 놀라는 표정으로 보아 친구가 그린 그림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로 말할 것이므로 분석과 비판의 상황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학교 교실이고 (나)는 화자의 방이므로 동일한 공간에서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청자에게 반말을 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친구와 남매 관계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가)와 (나)는 모두 사적인 상황에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청자는 친구이고 (나)의 청자는 동생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가)와 (나)의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상황 맥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제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상황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동일한 언어적 표현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말하는 공간 등을 바탕으로 담화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05** **서술형** 동일한 “네가 그린 거니?”라는 언어적 표현이지만 (가)에서 화자가 놀라는 표정으로 보아, 청자(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놀라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보아 화자가 자신의 수첩을 더럽힌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가)와 (나)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가)와 (나)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가)는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는 아빠의 말의 의도를, (나)는 할머니가 ○○ 아파트

트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곤란한 상황에서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할머니의 말의 의도를 청자가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청자는 모두 추론하며 듣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화자의 언어적 표현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추론하며 듣기는 담화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내용(의도)을 미루어 짐작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두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을 뿐 어느 표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와 (나)의 화자가 말을 하는 의도는 서로 다르다.

**07** (가)에서 정민이는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 아빠가 한 말(언어적 표현), 아빠의 찡그린 표정(비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하여 아빠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들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에서 아빠의 긴장 정도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정민이가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08**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할머니의 말은 언어적 표현으로, ○○ 아파트에 가고자 하지만 이 동네가 처음이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언어적·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어적·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 할머니의 땀을 닦는 행동과 힘들어하는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09** 이 글은 장애인을 위한 고궁의 ‘장면 해설 서비스’ 시행 현황과 그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이다.

**오답 풀이** ① 친교를 위한 담화는 대개 일상적인 대화 등에 해당한다.

③ 대중을 상대로 설득하기 위한 담화는 연설 등에 해당한다.

④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담화는 토의, 협상 등에 해당한다.

⑤ 전문적인 견해를 나누기 위한 담화는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담화에 해당한다.

**10** 스마트폰 수어 설명은 청각 장애인이 수어(시각)에 다른 감각을 더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궁을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한글보다 먼저 배운 수어가 모국어 같기 때문에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수어가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글에 담긴 세부 정보들을 상세히 서술한 선지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답을 고를 때 착각을 유발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새로 시작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면 해설 서비스'와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수어 설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11** **서술형** 기자가 '장면 해설 서비스'의 설명이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기자는 고궁의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기자의 관점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기자의 관점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기자의 관점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12** '기댈 수 있는 팔'은 시각 장애인이 고궁을 방문했을 때 영상 해설사의 도움을 받으면 생생하고 안전하게 고궁을 관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사회가 시각 장애인에게 배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기댈 수 있는 팔'은 영상 해설사의 도움을 받으면 시각 장애인이 고궁의 여러 모습과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함께 걷고 방향을 지시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④ '기댈 수 있는 팔'은 '장애인에 대한 영상 해설사의 도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⑤ 영상 해설사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고궁에서 열리는 행사나 고궁의 건물, 물건 등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 13** 단어의 형성 과정은 품사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에 따라,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이다.

- 14**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조사이다. ②의 '이나'는 수량이 커거나 많음을 강조하는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한'은 관형사, '소중하게(소중하다)'는 형용사, '그'는 대명사이다.

- 15** '친구', '밥', '산'은 모두 명사로,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동사, ②는 수사, ③은 형용사, ⑤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6** **서술형** '영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빨간'과 '노란'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먹었다(먹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17**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ㄱ의 '없다', ㄴ의 '힘든(힘들다)', ㄹ의 '커다란(커다랗다)' 등이 형용사에 해당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문장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떠올려 보고 문장 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한다.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문장에서 이러한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활용형을 찾고, 이를 기본형으로 바꾸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본다.

- 18** '이곳'은 대명사, '이순신'은 명사, '둘'은 수사이다. 대명사, 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문체 기능을 하므로 이들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대명사, ②는 명사, ③은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므로 ⑤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

- 19** <보기>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의 '우리', '이곳'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저', ②의 '이', ⑤의 '그'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고, ③에는 대명사가 쓰이지 않았다.

개념어 풀이

Q 지시 관형사란?

A 지시 관형사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중,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를 말한다. 다만 그 형태가 대명사 '이, 그, 저'와 동일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준다면,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관형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 품사 중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어서 쓰인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품사가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⑤ 우리말의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21** 제시된 글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나와서(나오다), 되면(되다), 벗고(벗다), 돌아간다(돌아가다), 나누는(나누다)’이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뚝뚝하고(무뚝뚝하다), 뻗뻗하다, 싱거운(싱겁다), 없다’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용언의 활용형을 제시하고, 용언의 품사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품사가 잘못 분류된 단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2** <보기>에서 ‘해냈다(해내다)’는 동사, ‘아담하고(아담하다)’, ‘작았다(작다)’, ‘아름다웠다(아름답다)’는 형용사이다.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성질)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달리는 말이 멋지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었다’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주어를 꾸며 주기도 하지만 <보기>의 문장에는 쓰이지 않았다.

② 문장에서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것은 감탄사(독립언)이다.

④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종결 어미를 통해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고, 연결 어미를 통해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⑤ 동사는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지 못하고, 형용사 자체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한정해 주지 못한다.

**23**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서술어로 쓰인다.

**24** ‘반드시’와 ‘역시’는 부사이다. 부사는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며 주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단어는 조사이다.

②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체언,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부사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를 꾸며 주는 경우는 없다.

③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것은 가변어인 동사와 형용사이다.

**25** ‘헌’은 명사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바로’는 서술어 ‘범인이야’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단지’는 서술어 ‘그뿐이었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어제’는 동사 ‘방문했던’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빨리’는 동사 ‘적응하느라’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Tip**

**‘단지’, ‘바로’가 부사라고?**

‘단지’와 ‘바로’는 부사로, 이 둘은 뒤에 주로 용언이 오는 부사와 달리 뒤에 체언이 온다. 대체로 ‘단지 그것뿐’, ‘바로 너’와 같이 쓰이는데, 이때는 ‘그것뿐’, ‘너’에 조사 ‘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단지’, ‘바로’ 등은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26**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조사이다. 조사는 ㄱ의 ‘께서’, ‘을’과 같이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ㄴ의 ‘은’과 같이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어미이다.

② 체언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은 조사지만, 조사는 다른 단어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③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단어는 격 조사이지만, 조사가 대상의 감정을 표현해 주지는 못한다.

⑤ 조사는 다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지만, 다른 단어들을 수식해 주지는 못한다.

**27** **서술형** ㄱ의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ㄴ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리고 ㄷ의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므로, 세 문장의 의미 차이가 나는 까닭은 조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세 문장의 의미가 차이 나는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세 문장 중 두 문장만 의미 차이가 차이 나는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세 문장 중 일부 문장만 의미가 차이 나는 까닭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8**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며,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이다.

- 29 ㄴ과 같이 명사 위주로 바꿔 표현하면 내용을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 30 감탄사는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ㄱ의 ‘예’는 대답을, ㄴ의 ‘어이구’는 놀람을, ㄷ의 ‘애’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서술형 실력 플러스

- 31 화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해 노력을 추구하는 교육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제시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의 가치관을 <조건>에 맞게 서술했을 때	A
화자의 가치관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B
화자의 가치관을 잘못 서술하고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을 때	C

- 32 상황 맥락과 화자가 사용한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화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말을 하였는데, 정민이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민이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겠다는 말을 하여야 아빠의 의도를 제대로 추론하며 듣고 반응한 것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33 <보기>의 ‘가다’와 ‘예쁘다’가 문장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다만 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형태를 바꾸는 것에 제약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34 (가)의 ‘수어가’가 (나)의 ‘수어만’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에게는 오직 수어가 모국어 같다는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의 의미에 차이가 나는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가)와 (나)의 의미에 차이가 나는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가)와 (나)의 의미에 차이가 나는 까닭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4 성장의 시간

### 대단원 필수 어휘 미리 보기

136~137쪽

- 01 (1)-㉠ (2)-㉠ (3)-㉠ (4)-㉠  
 02 (1) 영롱하다 (2) 진술하다 (3) 굉음 (4) 자아  
 03 (1) 치유하는 (2) 영롱하여 (3) 자아 (4) 내면화  
 04 (1) 고스란히 (2) 진술하다 (3) 체면

### 1 옥수수 빵소니

#### 개념 확인 문제

138쪽

- 01 성찰 02 (1) ○ (2) × (3) ○ (4) ○ 03 ㉠

- 01 성찰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뜻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그 속에 나타난 인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 02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탐구를 할 수 있다.
- 03 문학 작품의 감상에서 중심이 되는 성찰의 요소는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과 작품의 주제 의식이다. 독자는 작품 속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삶을 성찰하게 된다.

#### 내용 확인 문제

139~15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폴더 폰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골목 삼거리 18 ㉠ 19 ㉠  
 20 ㉠ 21 깨진 스마트폰 22 ㉠ 23 ㉠ 24 ㉠ 25 ㉠  
 26 ㉠ 27 ㉠ 28 백만 원의 환상 29 ㉠ 30 ㉠  
 31 ㉠ 32 ㉠ 33 선글라스 아저씨 34 땀에 젖어 짜글  
 짜글 시든 배춧잎 35 ㉠ 36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적이다(선량하다). 37 ㉠ 38 ㉠ 39 ㉠ 40 ㉠ 41 ㉠

- 01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이다.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나'와 재준이의 관계, '나'의 가정 형편과 자기 싫어하는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가)에서 두 사람은 등교하는 길이 아니라 하교하는 길에 자전거 경주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

03 (가)에서 '나'는 성능 좋은 자전거를 타는 재준이보다 자신의 자전거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다. '나'는 재준이가 빠르게 추격해 오자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았으므로, 자전거 경주에서 재준이에게 지게 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나'가 급작스레 자전거 방향을 꺾자 트럭이 경적을 울렸고, 트럭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란 '나'는 핸들을 너무 크게 꺾어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굴렀다.

05 '나'는 교통사고 후에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또 질문을 뿌리치려고 대답도 짧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고가 난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창피하고, 아저씨를 피하고 싶은 심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06 사고 직후 아저씨는 '나'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며 걱정하고 있다.

07 아저씨는 '나'의 상태를 계속 염려하며 자기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 주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08 '폴더 폰'은 아저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Tip

##### 옥수수 아저씨의 특징과 처지

- |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이 벗겨진 낡은 폴더 폰을 사용함.</li> <li>• 낡은 일 톤 트럭을 개조해 옥수수와 계란빵을 팔고 있음.</li> <li>• 명함 대신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줌.</li> </ul> |
|----|---|

→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드러냄.

09 핸드폰 번호를 불러 달라는 아저씨에게 '나'는 핸드폰이 없다고 말한다. 핸드폰이 없는 것을 '아픈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핸드폰을 갖고 싶지만 가정 형편상 갖지 못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0 재준이는 교통사고 후에 아저씨가 '나'를 걱정하며 한 말이나 '나'에게 핸드폰 번호를 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행동 등을 통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 11 (다)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가정 환경이 잘 드러난다. ‘나’는 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았으며,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와 살고 있지는 않다.
- 12 ‘나’는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일곱 시가 되면 게임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초조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 13 ‘나’와의 통화 내용으로 보아 옥수수 아저씨는 ‘나’의 부모님께 사고에 대해 알리고, 혹시 ‘나’에게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하려고 전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14 (다)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선한 의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게임을 중단시켰다며 짜증을 내고 있다. 따라서 철이 없고 생각이 얕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Tip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특징

행동	옥수수 아저씨는 ‘나’가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되어 전화를 했지만 ‘나’는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고 화를 냄.
----	--

→ 철이 없고 생각이 단순한 성격임.

- 15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전화를 귀찮게 여기며 게임 캐릭터가 얻어맞고 있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트럭과 부딪힐 뻔했던 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며, ‘나’가 사고보다는 게임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 16 (라)에서 ‘나’는 검은 승용차에 치이는 두 번째 사고를 당한다. 이처럼 이야기의 전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 사건이라고 한다.
- 17 (라)의 ‘아, 여기 골목 삼거리였구나.’에서 사고가 일어난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18 선글라스 아저씨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몰아가면서 연락처도 주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해 버린다. 따라서 ‘나’를 걱정하느라 살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9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일을 창피해하고, 다친 것을 숨기려고 별떡 일어난다. 또한 ‘나’는 약하게 보일까 봐 아프지 않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가 자존심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20 교통사고 이후 옥수수 아저씨는 연락처를 주었지만, 선글라스 아저씨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가 버렸다. 이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

- 21 ‘나’는 재준이에게 빌린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지자 수리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자기 몸보다 오히려 스마트폰 수리비를 더 크게 걱정하는 상황이다.
- 22 ‘나’는 교통사고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선글라스 아저씨가 무책임하게 가 버린 사실을 원망하면서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23 ‘나’는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걱정하면서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당한 불운을 떠올리고 있다. ㉠은 두 번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빌린 스마트폰의 수리비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쓴 표현이다.
- 24 ‘나’는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인해 옆구리를 다치게 되었고, 재준이에게 빌린 스마트폰의 액정까지 파손되었다. 두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선글라스 아저씨이므로 ㉠이 가리키는 ‘책임질 사람’은 선글라스 아저씨라고 볼 수 있다.
- 25 ‘나’는 선글라스 아저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전날 받은 옥수수 아저씨의 연락처를 떠올린다. 이후 ‘나’가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이 파손되었음을 알리는 모습으로 보아 ㉡ ‘어떤 생각’은 옥수수 아저씨에게 스마트폰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 스마트폰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 그날 일을 부모님께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 26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 내려고 했는데, 옥수수 아저씨는 오히려 ‘나’의 몸을 걱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술을 악무는 ‘나’의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하려는 결심의 표현이다.
- 27 ‘나’는 옥수수 아저씨를 속이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 28 ‘나’는 병실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합의금을 받아 재준이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물어 주고, 자신 역시 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된다. (바)에서는 이러한 ‘나’의 희망을 ‘백만 원의 환상’이라 표현하고 있다.
- 29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떳떳하지 않은 ‘나’는 옥수수 아저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다.

**30** 부인과 통화하는 옥수수 아저씨의 말투에는 다정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옥수수 아저씨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병실에 찾아온 옥수수 아저씨는 초라한 행색이다. ③, ⑤ ‘중환자실’, ‘산소 호흡기’ 등의 단어를 통해 누군가가 위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④ 옥수수 아저씨는 뺑소니범으로 몰린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31** ㉠ ‘자기가 진짜 뺑소니를 친 것처럼 말했다.’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실을 ‘나’는 알고 있지만 옥수수 아저씨는 자기 때문에 ‘나’가 다쳤다고 생각하여 미안해하고 있다.

**32** ㉡ ‘낡디낡은 핸드폰’은 옥수수 아저씨의 경제적 형편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이와 같이 넉넉하지 않은 옥수수 아저씨의 경제 사정을 암시하는 소재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 주글주글하고 험렁한 반바지, 낡은 운동화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② ‘담배와 링거’는 병실의 환자들이 실제로는 아프지 않는데 환자 흉내만 내고 있음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③ ‘산소 호흡기’는 옥수수 아저씨의 아기가 다소 심각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33**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려 하는 옥수수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책임하게 뺑소니를 친 선글라스 아저씨를 떠올린다.

**34** 옥수수 아저씨가 ‘나’의 손에 쥐여 준 만 원짜리 지폐는 땀에 젖어 주글주글해져 있었다. 즉 ‘땀에 젖어 주글주글 시든 배춧잎’과 같은 만 원짜리 지폐는 땀 흘려 일하며 아픈 아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옥수수 아저씨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35** 자신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에도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옥수수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신의 행동이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었음을 깨닫는다. ㉠은 자신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선글라스 아저씨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이 담긴 표현이다.

**36** 만 원짜리 지폐, ‘나’의 손을 꼭 잡았던 아저씨의 따뜻한 기운, 뜨끈뜨끈한 옥수수는 모두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성품을 보여 준다.

**37** 옥수수 아저씨가 병실을 찾아왔을 때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나’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뺑소니를 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잘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옥수수 아저씨의 사정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38**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사정을 떠올리며 미안함과 죄책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39** ㉡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양심을 버리고 환자인 척하는 모습을 빗댄 표현이다.

**40**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옥수수 아저씨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따라서 ㉢은 옥수수 아저씨를 찾아가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41** 이 글은 ‘나’의 성찰과 성장을 통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심 생각을 전하고 있다.

**활동 확인 문제**

152~156쪽

- 01** ⑤   **02** ③   **03** 지난번에 넘어졌을 때 스마트폰이 망가졌다.   **04** ①   **05**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06** ⑤   **07** ①   **08** ⑤   **09** ⑤   **10** 경보   **11** ③  
**12** ④   **13** ⑤   **14**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15** 성찰

**01**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은 두 번의 교통사고이다. ‘나’는 두 번째 사고 후 재준이에게 빌린 스마트폰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수리비를 마련하고자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옥수수 아저씨에게 합의금을 받지는 않는다.

**02** 이 소설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은 옥수수 아저씨이다.

**03** ‘나’는 선글라스 아저씨에게 스마트폰 수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스마트폰이 망가졌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04** ‘나’의 거짓말은 마치 옥수수 아저씨의 살점을 뜯는 것처럼 그의 삶을 파괴하는 괴롭힘이 된다는 깨달음이 담긴 표현이다.

**05** ‘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되면서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06**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아픈 아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아픈 아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의 거짓말로 옥수수 아저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 07 성장 소설은 인물의 깨달음을 통한 성장이 곧 작품의 주제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 08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인물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⑤의 경험은 〈옥수수 뽕소니〉의 ‘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린 경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 떠올렸을 만한 경험으로 알맞다.
- 09 만복이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 친구들과 달리 자신만 뒤쳐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였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 10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만복이에게 열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경보이다.
- 11 꿈이 없던 만복이에게 경보는 최초로 생긴 꿈이기에 무리해서라도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알 수 있다.
- 12 S# 53을 보면 “이거라도 안 하면 웬지 좀…….”, “무서워요.”라는 만복이의 대사가 나온다. 이를 통해 만복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만복이는 선생님의 권유로 경보를 시작하면서 행복해지는 듯했으나, 다른 이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 조급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이후 만복이는 스스로 찾은 목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중심 생각을 전하고 있다.
- 14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만 뒤쳐진다는 불안감으로 무리하던 만복이는 넘어지고 나서야 꼭 빨리 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후 만복이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깨달음을 얻고 시합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 15 〈견기왕〉과 같은 인물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는 까닭은 작품 속 인물의 삶의 모습과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독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01 ⑤    02 ⑤    03 ‘나’는 트럭이 경적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가자 놀라서 자전거 핸들을 너무 크게 꺾는 바람에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04 ①    05 ①    06 ①    07 ④    08 ⑤
- 09 사고 후에 옥수수 아저씨는 연락처를 주면서 사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반면에, 선글라스 아저씨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나 버린다.    10 ①    11 ④    12 ①    13 ③    14 ②
- 15 ③    16 ③    17 낡은 핸드폰, 빛바래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꾸글꾸글하고 험렁한 반바지, 낡은 운동화 등으로 보아 옥수수 아저씨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8 ①    19 ⑤
- 20 ③    21 ③    22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나’의 양심이 죽어 있었다.    23 ③    24 ④    25 ⑤    26 만복이가 경보는 그만두었지만 걷기는 계속하는 모습을 통해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 01 ‘나’는 트럭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트럭 경적 소리에 놀라서 핸들을 너무 크게 꺾는 바람에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이다.
- 02 ‘나’는 자신의 몸 상태를 묻는 아저씨의 질문을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의 관심이나 도움이 달갑지 않다는 의미이다.
- 03 **서술형** ‘나’는 재준이와 위험하게 자전거 경주를 하다가 트럭에 부딪힐 뻔한 사고를 당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에게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나’에게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나’에게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04 아저씨는 ‘나’가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저씨가 ‘나’에게 주의를 주거나, 사고의 원인을 따지거나, 자전거의 파손을 염려하거나, 사고 현장을 빨리 떠나려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05 ‘뽕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일’,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짓’이다.
- 06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

07 '나'는 또래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재준이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상황을 통해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다.

08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도망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한다. 따라서 선글라스 아저씨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급히 떠나는 장면이 제시된 (마)가 뺑소니 사건이 담긴 문단이라고 할 수 있다.

09 **서술형** '나'와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옥수수 아저씨는 '나'를 걱정하며 연락처를 준 반면, 선글라스 아저씨는 '나'를 책망하며 연락처도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옥수수 아저씨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고, 선글라스 아저씨는 무책임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인물의 행동과 태도의 차이점을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두 인물의 행동이나 태도 중 한 가지만 차이점을 서술했을 때	B
두 인물은 밝혔으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서술하지 못했을 때	C

10 ㉠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서 주는 옥수수 아저씨의 인상이 매우 불품없어 보인다는 '나'의 속마음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옥수수 아저씨를 무책임하다고 여기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 저번에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졌을 때 친구의 핸드폰이 깨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2 '나'는 다친 살갓보다도 마음이 쓰리다고 말하고 있다.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당한 사실을 부모님께 말해야 하는데, 크게 혼날 생각에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3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 하지만, 불편한 마음에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입술을 악문 것은 거짓말을 하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14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찢려서 의심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15 병원에 입원한 '나'를 찾아온 옥수수 아저씨는 끝까지 '나'

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반면 그런 옥수수 아저씨를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6 옥수수 아저씨는 사고 직후에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연락처만 주고 떠난 것을 사과하고 있다.

17 **서술형** 옥수수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과 허름하고 불품없는 차립새를 통해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18 ㉠은 '나'가 선글라스 아저씨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었는데 자신이 옥수수 아저씨에게 한 행동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다.

19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주고 간 따뜻한 옥수수를 통해 아저씨의 따뜻한 인간성을 떠올리고 있다. '꼬깃꼬깃 불품없는 지폐'는 옥수수 아저씨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나'는 이것을 통해 행복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20 성장 소설은 인물의 깨달음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나'는 양심을 숙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려 한다. 작가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1 '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온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22 **서술형** (라)에서 '나'는 병실에 있는 거짓 환자들이 양심을 숙이고 환자 행세를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은 '나' 또한 합의금을 받고자 양심을 버렸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3**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방법으로는 작품 속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인물의 행동(현실 대응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 보는 방법이 있다.

**24** (다)를 통해 반복이는 대회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그 만두였음을 알 수 있다.

**25** 독자가 자신의 삶에 비추어 작품을 감상할 때 성찰이 일어난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반응을 찾아보아야 한다. 인물의 생각이나 작품의 소재, 갈등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의 내용 이해를 위한 감상이며, 독자의 삶에 대한 성찰로 보기는 어렵다.

**26** **서술형** (다)에서 전국 체전 경보 대회에 참가한 반복이는 경보를 그만두기로 한다. (라)에서 반복이는 걸어서 목지까지 가려고 한다.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는 반복이가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스스로 찾는 행복의 가치에 대해 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개념 확인 문제

164쪽

- 01** (1) ○ (2) ○   **02**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03** 감동, 즐거움  
**04** ㉠

**0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생활 속 체험이나 생각을 담은 글인 수필로 쓰거나 편지, 만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02**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의미 있는 경험을 고른 후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험에서 느끼거나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03**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독자에게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 공감하게 하여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04**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에서 확인해야 한다.

### 활동 확인 문제

165~169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5** ⑤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②   **11** 보석   **12** ④   **13** ②   **14** 슬픔  
**15** ③

**01** 다영이가 쓰려는 글은 생활 속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02** 다영이가 ‘키우던 물고기가 죽은 일’을 글감으로 선택한 까닭은 ‘물고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험이므로 글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03**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경험 떠올리기’ 과정 다음에 할 일은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이다. 글감으로 쓸 경험을 골랐다면, 그 경험과 그때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내용 조직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② ‘표현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예상 독자의 흥미와 관심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글감을 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⑤ 글감으로 정한 경험과 정서를 구체화하여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다른 경험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04** ‘어떤 경험이 의미가 있을까?’는 글감을 선택할 때 고려할 내용이다.

**05** 다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경험한 일과 그때의 생각 또는 감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06** 다영이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 다영이는 부모님께 물고기를 선물로 받아서 키우게 되었다. 동물을 키우는 일로 부모님과 갈등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자신의 경험이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하고, 글의 구조에 따라 ‘처음-중간-끝’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글쓰기 과정은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08 개요는 글로 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개요를 검토할 때는 제목에 경험이 잘 드러나는지,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드러나는지, 경험한 일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영이가 개요를 검토할 때 독자의 공감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하지는 않았다.

09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처음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때의 정서를 표현하며, 끝부분에서는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정리한다.

10 다영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열한 마리의 거피는 모두 보석처럼 아름다웠고, 다영이는 거피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했다.

**오답 풀이** ① 다영이는 예전에도 몇 차례 물고기의 죽음을 본 터라 조금은 무뎠을 줄 알았지만 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③ 다영이가 어렸을 적 아빠가 키우던 물고기를 볼 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었다.

④ 다영이는 거피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오래 울다가 잠들어서 눈이 통통 부었고, 그다음 날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에 가서 통통 부은 얼굴로 사진을 찍었다.

⑤ 어항 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굴색의 거피가 동동 떠있곤 했지만, 그 물고기를 위해 다영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켜보기만 했다.

11 다영이는 열한 마리 거피의 다양한 외양을 묘사하고 거피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2 다영이는 아빠께서 굴색의 거피를 건져 내었을 때, 축 처져서 몸부림도 치지 못하는 물고기를 보며 이상한 기분, 즉 무섭고 멍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원망하는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열한 마리의 물고기를 데려온 첫날, 신나서 어항 앞에 앉아 꼬박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다.

② 굴색의 지느러미가 힘없이 뒤집혀 물에 동동 떠 있어서 깜짝 놀라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③ 굴색의 거피가 물에 동동 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헤엄쳐 돌아다니는 행동을 며칠 동안 반복하는 것을 보며 꽤 충격을 받았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하였다.

⑤ 힘이 빠진 채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보니 죄책감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을 짓눌렀다고 하였다.

13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논리적인 성격의 글은 아니다.

14 이 글은 물고기를 떠나보낸 글쓴이(다영이)의 경험과 정서를 표현한 글로,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물고기와의 추억과 물고기가 떠난 후의 슬픔’이라는 주제를 전달한다.

15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성찰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독자에게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공감하게 하여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만점 대비 소단원 핵심 문제

171~173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내용을 조직할 때 글의 제목은 글쓴이의 경험이 잘 드러나게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녕, 나의 물고기’로 바꾼다. 06 ③ 07 ② 08 열한 마리 거피의 아름다움을 인상 깊게 나타내기 위해 보석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0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굴색 거피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비록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01 다영이가 쓰려는 글은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 소재로 한 수필이다. 수필은 생활 속 체험이나 생각을 담은 글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며, 소재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글이지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아니다.

02 (가)에서 다영이는 여러 가지 경험을 떠올린 다음,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서 마음이 무척 아팠던 일을 글감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으면서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선정할 것이다.

03 (나)에서 다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각의 경험과 그때 든 감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경험에서 느끼거나 깨달은 점도 정리하였다.

04 이 글의 주제는 ‘물고기와의 추억과 물고기가 떠난 후의 슬픔’이다. ㉠은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05 **서술형**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글의 제목은 자신의 경험이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정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를 <조건>에 모두 맞게 고쳐 서술했을 때	A
㉠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고쳐 서술했을 때	B
㉠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가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 또한 독자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스스로에게는 위로가 되며, 독자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07** (나)의 ‘그래서 나는 ~ 준비를 했다.’를 통해 생일 선물로 부모님께 새로운 물고기를 받아서 키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서술형** (다)는 글쓴이가 부모님께 선물로 받은 열한 마리의 거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하기 위한 문단이다. 글쓴이는 이때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다)에서 사용한 비유 표현과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다)에서 사용한 비유 표현과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다)에서 사용한 비유 표현과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서술했으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9**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에게 특별했던 물고기인 굴색의 거피를 소개하고 있다. ‘나’가 굴색 거피를 특별하게 여겼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후 굴색 거피의 죽음이 더욱 슬프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글을 전개하고 있다.

**10** ㉠은 굴색 거피의 꼬리지느러미를 나비의 날개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비유 표현은 대상의 이미지를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11**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경험이 특별하거보다는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경험인지,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잘 표현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상에서 겪은 사소한 경험이라도 글쓴이에게 의미가 있다면 글감이 될 수 있다.

**12**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독자에게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 공감하게 하여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13** ‘무덤덤하다’는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평범하다는 의미이다. 글쓴이는 아끼던 거피가 생사를 오가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죄책감, 미안함, 괴로움, 허망함 등을 느낀다.

**14** (가)에서는 굴색의 거피가 살려는 의지로 버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힘없이 물에 둥둥 떠 있던 거피가 다시 헤엄쳐 돌아다니고,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거피를 보내 줄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에서 거피는 아직 죽 않고 살아 있는 상태이다.

**15** **서술형** 글쓴이는 거피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거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이 경험을 통해 비록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의 깨달음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쓴이의 깨달음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쓴이의 깨달음을 서술했으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만점 완성 대단원 종합 문제

174~181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① **05** ㉠은 옥수수 아저씨로 사고 후에 ‘나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은 선글라스 아저씨로 사고 후에 ‘나의 탓을 하며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② **11** ④ **12** 빛바래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찌글찌글하고 험령한 반바지, 낡은 운동화 등의 허름한 차림새로 보아 옥수수 아저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③ **19** ⑤ **20** ⑤ **21** ① **22** ③ **23** ④

**24** ㉠은 거피를 잃은 글쓴이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서술형 실력 점검

**25**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 고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을 속이는 행동임을 깨달았다.

**26** 옥수수 뺱소니는 망가진 친구의 스마트폰을 책임지지 않고 잘못이 없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책임을 미룬 ‘나’이다.

**27** 글의 중간 부분에는 ‘나’가 생일 선물로 물고기를 받고 키우게 된 일과 아끼던 물고기가 세상을 떠나고 느꼈던 감정을 쓴다.

**28** 글쓴이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경험을 성찰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다.

**01** 이 글은 주인공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나’가 겪은 일과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③, ⑤ 이 소설은 ‘나’가 겪은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또한 거짓말을 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나’의 내적 갈등이 중심이 된다.

**02** (가)에서 ‘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하며 재준이와의 자전거 경주에서 지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재준이의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자전거를 타지만 그럼에도 경주에서 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주에서 진다면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경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보아 ‘나’는 자존심이 강하며 지기 싫어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3** (나)에서 ‘딱 봐도 옛날 폴더 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아저씨가 아주 오래전에 산 낡은 핸드폰을 지금껏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옥수수 아저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브레이크’는 ‘나’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하여 첫 번째 사고가 나는 것과 관련 있다.

② ‘트럭 경적 소리는 ‘나’를 놀라게 한 소리로, 옥수수 아저씨가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이다.

④ ‘검은 자동차’는 ‘나’가 당한 두 번째 사고와 관련 있다.

⑤ ‘선글라스’는 검은 자동차를 운전한 아저씨가 쓰고 있던 것이다.

**04** (다), (라)는 사고를 낸 사람이 오히려 다친 사람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 있는 속담은 ‘방귀 편 놈이 성낸다’이다. ‘방귀 편 놈이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끼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③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소설 속 인물의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는 속담을 찾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인물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된 속담 중 소설 속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적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05** **서술형** 옥수수 아저씨와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 후에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옥수수 아저씨는 인간적이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리며 비인간적이고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인물의 태도를 비교하여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두 인물의 태도를 비교하여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두 인물의 태도를 비교하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06** ‘나’는 선글라스 아저씨가 운전하던 검은 승용차에 치였고, 이때 재준이의 스마트폰이 떨어져 액정에 금이 가 있었다.

**07** 옥수수 아저씨는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교통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08** ‘나’는 깨진 재준이의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스마트폰 수리비를 받아 내려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이후 사건이 커지면서 죄책감으로 인해 더 큰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 그에 따른 갈등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추론하고, 인물이 한 행동의 의도와 결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09**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했으므로 옥수수 아저씨가 찾아오자 시선을 피한다.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아저씨에게 거짓말이 들릴까 봐 불안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① 옥수수 아저씨에게 스마트폰 수리비를 받으려는 나쁜 마음을 실행하려니 긴장감이 느껴져서 침을 꿀꺽 삼킨 것이다.  
 ② 옥수수 아저씨의 재촉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액정의 균열을 보고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입술을 악물었다.  
 ③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한 후 아저씨가 잠시 대답하지 않자, '나는 아저씨에게 거짓말이 들킬까 봐 긴장해서 가슴이 뒤틀 것이다.'  
 ⑤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답답함을 느낀 것이다.

- 10**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가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독자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의 자세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 속 인물의 행동, 말이 다른 독자에게 줄 영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작품 감상을 통한 자아 성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성장을 다룬 작품에는 인물의 성찰을 통한 성장이 드러난다. '나'는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진실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인물이 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고난도 유형 확인**

-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소설 속 인물의 변화와 성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물이 작품 속에서 보이는 변화를 이해하고, 정신적 성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12** **서술형** (나)에서 '나'는 통화하러 나간 옥수수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때 옥수수 아저씨의 허름한 차림새에서 옥수수 아저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옥수수 아저씨의 처지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13** (라)에서 '나'는 병실 안의 환자들이 비양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처럼 '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14**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소설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영화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사건을 전달한다. 시나리오에는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없으므로 반복이는 이 글의 주인공일 뿐 서술자라고 할 수 없다.

**고난도 유형 확인**

-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글의 갈래와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형식적 특징과 작품의 주요 사건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15** 반복이는 옥상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가 경보를 시작하고 나서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한다. 이후 대회에서 넘어진 반복이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기권한 후, 차를 타지 못해도 걸어서 여행을 떠나며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 16** 이 글에서 반복이는 대회를 포기한 후 자기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작가는 행복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주제를 전한다.
- 17** 반복이는 '근데 나 왜 이렇게 빨리 달렸던 걸까? 어쩌면 그냥,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경보가 힘들었던 반복이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18**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경험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이다.  
 ② 수필은 생활 속 체험이나 생각을 담은 글로 논리성이 중요하지는 않다.  
 ④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이다.  
 ⑤ 수필은 글쓴이의 삶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글과 다른 수필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19** (다)에서 '나'는 거피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그냥 보내 줄까 고민했지만, 계속 살려는 의지로 버티는 거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몇 번이나 바꾸었다고 했다. 그런데 (라)에서 결국 '나'의 아빠가 다른 물고기를 위해 죽기 직전인 골색 거피를 건져 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글로 쓸 경험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의미 있는 경험을 글감으로 정해야 한다. 이 글의 글쓴이도 물고기를 키우다가 떠나보냈던 경험이 물고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기에 때문에 글감으로 선택한 것이다.

**21** 이 글의 유형은 편지가 아니라 수필이다. 수필은 생활 속 체험이나 생각을 담은 글이다.

**고난도 유형 확인**

**유형 점검** | 이 유형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글의 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내용을 조직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풀이**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처음-중간-끝'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감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글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2**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ㄴ)'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ㄹ)'이다.

**오답 풀이** '글의 들어갈 내용의 순서가 적절한가?(ㄱ)'와 '개요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가?(ㄷ)'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경험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ㄷ)'는 '표현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23** (라)에서 글쓴이는 예전에도 몇 차례 물고기의 죽음을 본 터라 조금 무뎠을 줄 알았지만 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하면서 비록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24** **서술형** ㉠에서 글쓴이는 거피를 잃은 슬픔에 해야 할 일도 있고 밤하늘에 눈물을 섞다가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물고기가 떠난 후 느낀 자신의 슬픈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서술형 실력 플러스**

**25** '나'는 거짓말을 해서 옥수수 아저씨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했다. 즉, ㉠은 '나'의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의 성장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인물의 성장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인물의 성장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6** 이 글에서 '옥수수'와 '뽕소니'라는 단어와 관련된 인물이 누군지 생각해 보았을 때, '나'가 자신의 잘못으로 망가진 재준이의 스마트폰을 책임지지 않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책임을 미루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제목의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제목의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제목의 의미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7**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중간 부분에서는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때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의 중간 부분에 쓸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글의 중간 부분에 쓸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글의 중간 부분에 쓸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28**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경험을 성찰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가치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A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가치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B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가치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C

## 1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 1 길

시험 전 바른 체크

184쪽

- 01 (1) 비슷한 (2) 직유법, 은유법, 사람
- 02 길, 세계, 포도송이, 생생, 인상
- 03 가락, 반복
- 04 르, 음성 상징어, 음악성, 주제
- 05 마을, 집, 사람, 세계, 성장

소단원 쪽지 시험

185쪽

- 01 (1) × (2) × (3) ○ (4) ○ (5) ○ (6) ○
- 02 (1) -㉠ (2) -㉡ (3) -㉢
- 03 ㉠, ㉢
- 04 (1) ㉠, ㉡ (2) ㉢ (3) ㉣, ㉤ (4) ㉥, ㉦, ㉧

### 2 사랑하는 별 하나

시험 전 바른 체크

186쪽

- 01 (1) 추상적, 구체적 (2) 구체적
- 02 (1) 상징적 (2) 운율, 소망 (3) 간접적, 직접적
- 03 꽃, 위로
- 04 (1) 추상적 (2) 다양 (3) 주제 (4) 풍부
- 05 들꽃, 의문형, 존재

소단원 쪽지 시험

187쪽

- 01 (1) -㉠-㉡ (2) -㉢-㉣ (3) -㉤-㉥
- 02 (1) ㉢ (2) ㉤ (3) ㉠ (4) ㉡
- 03 (1) ○ (2) ○ (3) ○ (4) ×
- 04 (1) 되고 싶다 (2) 흔한 (3) 밤 (4) 사람

### 3 매체로 소통하기

시험 전 바른 체크

188쪽

- 01 (1) 온라인 (2) 공적, 개방적
- 02 인쇄, 일방향, 방송, 대량, 쌍방향, 상호 작용
- 03 공적, 공손, 댓글, 사적, 이미지, 개방적, 영향, 해시태그
- 04 (1) 영향력, 책임감 (2) 배려 (3) 개인 (4) 저작권

소단원 쪽지 시험

189쪽

- 01 (1) -㉠ (2) -㉡ (3) -㉢ (4) -㉣ (5) -㉤
- 02 (1) ㉢ (2) ㉣ (3) ㉠, ㉡
- 03 (1) × (2) ○ (3) × (4) ○ (5) × (6) ○
- 04 (1) 영향력 (2) 매체 이용자 (3) 온라인상  
(4) 사회 관계망 서비스 (5) 저작권 (6) 초상권

## 2 간추리고 쓰기

### 1 요약하며 읽기

시험 전 바른 체크

190쪽

- 01 (1) 중심 (2) 목적, 구조도, 말
- 02 (1) 선택 (2) 삭제 (3) 일반화 (4) 재구성
- 03 (1) 차이 (2) 정보, 대조, 차이
- 04 (1) 종자 (2) 정보
- 05 (1) 학습 목표 (2) 내용 (3) 글자

소단원 쪽지 시험

191쪽

- 01 (1) ㉠ (2) ㉡ (3) ㉢ (4) ㉣
- 02 (1) 예시 (2) 비교·대조 (3) 분류·구분 (4) 인과
- 03 (1) ○ (2) × (3) × (4) ○ (5) ○
- 04 (1) -㉠ (2) -㉡ (3) -㉢
- 05 (1) 단어 (2) 차이점 (3) 헌법과 형법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시험 전 바른 체크

192쪽

- 01 설명
- 02 (1) 정보 전달, 가치, 설명문 (2) 생성, 주제, 출처  
(3) 개요, 소중함 (4) 삭제, 불평등
- 03 독자, 통합, 쓰기 윤리

소단원 쪽지 시험

193쪽

- 01 (1) × (2) × (3) ○ (4) ○ (5) ○
- 02 ㉠-㉢-㉣-㉤
- 03 (1) ㉠ (2) ㉡ (3) ㉢ (4) ㉣ (5) ㉤
- 04 (1) 중심 내용 (2) 출처 (3) 쉽게

### 3

## 능동적인 언어생활

### 1 추론하며 듣기

#### 시험 전 빠른 체크

194쪽

- 01 (1) 숨겨진, 짐작 (2) 이해, 의도, 가치관, 상황
- 02 (1) 맥락 (2)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 03 비언어적, 칭찬, 야단
- 04 의도, 친절한, 가치, 현재(현실)

#### 소단원 쪽지 시험

195쪽

- 01 (1)-㉠ (2)-㉡ (3)-㉢ (4)-㉣ (5)-㉤
- 02 (1)㉠ (2)㉡ (3)㉢ (4)㉣
- 03 (1)-㉠ (2)-㉡ (3)-㉢
- 04 (1) 인터뷰 (2) 친절한 설명 (3) 어린이 화자  
(4) 현재에 충실할 것

###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 시험 전 빠른 체크

196쪽

- 01 (1) 공통된, 갈래 (2) 형태, 기능, 의미
- 02 명사, 대신, 순서, 용언, 대답, 의미, 동사
- 03 (1)㉠, ㉡ (2)㉢, ㉣ (3)㉤, ㉥

#### 소단원 쪽지 시험

197쪽

- 01 (1)㉠ (2)㉡ (3)㉢
- 02 (1)○ (2)○ (3)○ (4)× (5)×
- 03 (1)㉠ (2)㉡ (3)㉢ (4)㉣ (5)㉤
- 04 (1) 대명사 (2) 조용히 하자 (3) 관형사 (4) 대명사  
(5) 감탄사

### 4

## 성장의 시간

### 1 옥수수 뽕소니

#### 시험 전 빠른 체크

198쪽

- 01 성장, 성찰
- 02 트럭, 나, 후회
- 03 나, 자존심, 책임, 비인간적
- 04 뽕소니법, 잘못
- 05 양심, 진실한

#### 소단원 쪽지 시험

199쪽

- 01 (1)○ (2)× (3)○ (4)○ (5)× (6)× (7)○
- 02 ㉠-㉡-㉢-㉣-㉤-㉥
- 03 (1)㉠ (2)㉡ (3)㉢ (4)㉣
- 04 옥수수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시험 전 빠른 체크

200쪽

- 01 (1) 정서 (2) 수필
- 02 구체화, 처음, 중간, 끝, 깨달음
- 03 성찰, 감동
- 04 의미, 구체적, 진솔
- 05 행복, 생명

#### 소단원 쪽지 시험

201쪽

- 01 (1)○ (2)○ (3)× (4)○ (5)○
- 02 ㉠-㉡-㉢-㉣
- 03 (1)㉠ (2)㉡
- 04 (1)㉠ (2)㉡ (3)㉢

리얼 모의고사

리얼 모의 중간고사 1회

202~207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사람이 아닌 '해님'을 사람이 웃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① 08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 있는 행복을 의미하는데, 행복의 나라에는 이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파랑새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다. 09 ④ 10 ⑤ 11 ④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③ 17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은 기후 변화,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지구 온난화 등이 있다. 18 ③ 19 ③ 20 ③ 21 ③ 22 ① 23 ② 24 ⑤ 25 ㉠: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 ㉡: 사회의식의 발전

01 끊어 읽는 단위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가)와 (나) 모두 음보율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포도송이', '땅덩이' 등에서 'ㅇ' 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⑤ (가)는 '포도', (나)는 '될 수 있을까', '갖고 싶다' 등이 반복되고 있다.

Tip

(가)와 (나)의 운율 형성 방법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거나 유사한 소리의 반복('ㅇ', 'ㄹ')</li> <li>· 같거나 비슷한 단어의 반복('포도')</li> <li>· 유사한 구조의 시구의 반복(2연 2~3행, 4연 3~4행)</li> <li>· 음성 상징어(의태어)의 사용('토실토실')</li> </ul>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거나 유사한 시구의 반복('될 수 있을까', '갖고 싶다')</li> <li>·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1, 2, 3연)</li> </ul>

02 (가)에서는 '길'을 자연물인 '포도 덩굴'에, '마을'을 '포도송이'에, '집'을 '포도알'에, '세계'를 '한 덩이 과일', 즉 포도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비유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는데 (가)에는 의인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가)에는 수미상관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에서 음성 상징어는 '토실토실' 하나만 사용되었다.

03 '길'과 '포도 덩굴'은 모두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때문에 (가)에서는 원관념 '길'을 보조관념 '포도 덩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4 시인이 상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별'과 '꽃'은 추상적인 개념인 '외롭고 힘든 마음

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는 구체적 대상이다.

05 서술형 <보기>의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에 쓰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채점 기준	배점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6 티틸과 미틸 남매는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 다니다가 자신들이 알아채지 못한 행복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티틸과 미틸이 꿈속으로 가기 전에 이 웃을 보며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남매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② 티틸과 미틸은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 때문에 꿈속으로 파랑새를 찾아 떠났고, 행복의 나라에서 '엄마의 행복'을 만나 행복이 늘 곁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07 이 글에서 티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파랑새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파랑새(행복)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보아 행복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8 서술형 '엄마의 행복'은 파랑새, 즉 행복이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과 같이 말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의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의 의미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9 (가)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누리집 공간이고, (나)는 사적 정보를 다루는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더 개방적인 소통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오답 풀이 ③ (다)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누구나 수용자가 될 수 있다.

⑤ (가)가 주로 공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나), (다)는 개인적 공간이지만 공식 기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이 공적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10 <보기>의 연예인 ○○씨는 가짜 뉴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공유하려는 정보가 거짓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11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동네, 학교, 이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2 사적인 공간이어도 읽는 사람을 배려해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초면(처음 만나는 처지)이라면 존댓말로 공손하게 글을 쓰는 것이 좋다.

13 (라)는 사회 교과서의 일부로, 교과서는 학습 목표에 맞게 공부할 내용을 배워서 익히기 위해 읽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② (나)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시드뱅크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다)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지구 온난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라)는 사법의 개념, 종류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사법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4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을 읽는 목적과 글의 구조도에 따라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글을 제공한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글을 요약할 필요는 없다.

15 (가)는 기후 차이로 인한 남극과 북극의 다른 점, (나)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대상들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6 제시된 요약문은 (가)의 중요한 내용들인 ‘남극이 훨씬 춥다.’, ‘원주민이 없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주변의 여러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비교적 따뜻하다.’,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등을 모아 중심 내용이 담긴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을 그대로 선택하였다는 반응은 알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남극과 북극의 기후 차이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읽기의 목적은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② ‘그러나와 같은 적절한 말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④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70℃ 가까이 내려가며,’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⑤ (가)에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이 없어 재구성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17 **서술형** ㉠ 바로 다음에 ‘기후 변화와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을 꿀벌이 사라지는 까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18 (라)는 사회 교과서의 일부로 교과서의 작은 제목들은 교과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항목화한 것이고, 진한 글자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주로 과학 교과서를 요약하는 방법이다.  
 ② 주로 역사 교과서를 요약하는 방법이다.  
 ④ (라)에는 시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⑤ 주로 문학 작품이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19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라는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시드뱅크의 숫자는 덜 중요한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은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으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② ㉡는 ‘원주민이 산다.’ 정도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으로 재구성한다.  
 ④ ㉢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라는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덜 중요한 내용으로 삭제한다.  
 ⑤ 작은 제목 ‘개인 생활과 관련된 사법’과 ‘민법’이 진한 글자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는 중심 내용으로 선택한다.

20 (다)는 선별한 정보를 먼저 쓸 것과 나중에 쓸 것으로 나누어 배치한 개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계획하기 과정으로 글의 주제나 목적, 유형 정하기를 해야 한다.  
 ② (나)는 내용 생성하기 과정으로 정보 수집하기를 해야 한다.  
 ④, ⑤ (라)는 표현하기 과정으로 설명 대상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21 (가)의 ‘세계에서 인정한 탈춤의 가치를 설명하면’이라는 정윤이의 말로 보아, 글의 주제는 ‘탈춤의 특징과 가치’가 적절하다.

22 (나)에는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자료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3 제시된 자료는 지역마다 다른 탈춤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중간 1’의 ‘(2) 지역별 이름과 종류’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알맞다.



**24** 여러 매체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으나 그 양이 많을 필요는 없다. 매체 자료는 주제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하면 된다. 또한 (라)에는 영상, 그림, 사진이 사용되지 않았다.

**25** **서술형** ㉠은 '처음' 부분이므로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정보를 제시한다. 따라서 (가)의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정보로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에는 탈춤의 가치 중의 하나가 들어가야 하므로 (라)의 '탈춤은 조선 후기 ~사회의식을 발전시켰다.'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리얼 모의 중간고사 2회

208~213쪽

**01** ② **02** ⑤ **03** ① **04** 이어 주는 말인 '같은'을 사용해 '마을'과 '집'을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비유하였고, '포도'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05** ③ **06** ⑤ **07**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상징한다.(우리 곁에 있으나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복을 상징한다.) **08** ② **0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③ **14** ⑤ **15**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요약한다. **16** ⑤ **17** ③ **18** ④ **19** ⑤ **20** ① **21** ④ **22** ② **23** ⑤ **24** 중간 1-(3) 탈춤의 공연 비용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항목)이기 때문이다. **25** ③

**01** (가)의 4, 5연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감을 그리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는 밝은 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동무들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권유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비유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질문의 형식은 활용하지는 않았다.

**02** (가)의 '포도송이 같은 마을', (나)의 '아씨처럼 나린다/보슬보슬 햇비' 등에서 이어 주는 말('같은', '처럼')을 사용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햇비')을 다른 대상('포도송이', '아씨')에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Tip

(가)와 (나)의 비유 표현

	(가)	(나)
직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송이 같은 마을</li> <li>포도알 같은 집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씨처럼 나린다/보슬보슬 햇비</li> <li>옥수숫대처럼 크게</li> </ul>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은 포도 덩굴</li> <li>세계는 한 덩이 과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늘 다리 놓였다/알롱알롱 무지개</li> </ul>
의인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님이 웃는다/나 보고 웃는다.</li> <li>해님이 웃는다/즐거워 웃는다.</li> </ul>

**03** (가)는 직유법과 은유법 등의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어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오답 풀이** ② (가)는 규칙적인 심, 즉 음보로 인해 운율이 형성되지 않는다.  
 ③ (가)에 쓰인 '길', '마을', '집'이나 이를 빗댄 '포도 덩굴', '포도송'

이, '포도알' 등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들이다.

④ (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우며 세계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을 뿐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 않다.

**04** **서술형** (가)의 2연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A]의 표현 방법과 운율 형성 방법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A]의 표현 방법과 운율 형성 방법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A]의 표현 방법과 운율 형성 방법 중 한 가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1

**05** (나)에서 요정이나 티틸과 미틸 남매가 꿈속에서 가게 되는 공간을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티틸과 미틸 남매나 작가가 이 공간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가)에서도 환상적인 공간이나 그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06** (가)의 화자는 상처를 받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위안이 되는 사람을 갖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⑤는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므로 상처를 받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

**07** **서술형** “아, 파랑새다! 그렇게 찾았는데.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괜찮아, 내가 또 파랑새를 찾아 줄게.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등을 통해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파랑새가 상징하는 바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파랑새가 상징하는 바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파랑새가 상징하는 바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8** 티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남매의 집에 있었고, 결국 남매는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나)의 작가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9** ㉠은 ‘별’과 ‘꽃’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기보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려 주는 구절이다.

**10** (가)와 (나)는 모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상호 작용적 매체(ㄴ)이다.

**오답 풀이**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는 대량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달하고(ㄷ), 그것을 만드는 생산자가 명확하여 수용자와 생산자가 엄격하게 구분된다(ㄹ).

**11** (나)는 주연이 개인의 블로그이므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따라서 수용자들과 친분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편하게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다.

**12** (나)의 개인 정보는 잘못된 정보는 아니지만,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개인 정보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편이 좋다.

**개념어 풀이**

**Q 개인 정보란?**

**A** 이름, 주소, 전화번호 따위 같은 개인에 관한 자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3** (가)~(마) 중, (가)~(다)는 기후 차이로 인한 남극과 북극의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라)~(마)는 시드볼트의 특징,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가)~(마) 모두 작은 제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작은 제목에 따라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 것은 교과서를 요약하는 방법이다.

**14**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바탕으로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므로 종자 보존의 까닭을 다루고 있는 (마)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남극과 북극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③ (나)와 (다)는 기후 차이로 인한 남극과 북극의 다른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라)는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몇몇 국가에서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5** **서술형** (가)~(다)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극과 북극의 기후 차이로 인한 특성이다.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다)를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가)~(다)를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가)~(다)를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16 (가)의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와 (라)의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볼트를 설립하였다.’에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된다.

17 (나)와 (다)에서는 비교·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Tip**  
내용 전개 방식

예시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함.
비교·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
분류·구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 설명함.
인과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함.
묘사	대상의 모습 등을 눈에 보이듯 자세하게 설명함.
정의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 또는 용어가 지닌 개념을 명확하게 밝힘.
과정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나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함.

18 (나)에서 중요한 내용은 ‘남극이 훨씬 춥다.’, ‘거대한 대륙이므로’, ‘원주민이 없다.’이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포함하여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으로 재구성한다.

19 (마)에서는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 재구성한다.

- 오답 풀이** ① 교과서를 요약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② 구체적 개념들이 여러 개 제시되지 않았다.  
 ③ 요약은 중심 내용만 간추리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할 때 삭제한다.  
 ④ (마)에서는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을 찾을 수 없다.

20 ㉠은 (가)의 중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문장이지만 ㉡~㉣은 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21 (가)는 글의 목적, 대상, 주제, 유형, 예상 독자 등을 결정하는 ‘계획하기’에 해당하고, (나)는 계획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한다.

22 (가)에서 정윤이의 말로 보아 동아리 친구들이 쓰는 글은 온라인 학교 신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인쇄 매

체인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글을 올리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3 설명 대상을 글로 표현할 때는 각 문장이나 문단이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알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가)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개요(㉠)로, 글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설명할 대상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개요인 (가)를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써야 한다.

24 **서술형** (가)로 보아 글의 주제는 ‘탈춤의 특징과 가치’이다. 이 주제와 ‘탈춤의 공연 비용’은 거리가 멀어서 주제를 간밀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과 고쳐 쓴 까닭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가)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과 고쳐 쓴 까닭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가)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과 고쳐 쓴 까닭 중 한 가지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1

25 (나)에서는 탈춤의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탈춤은 지역마다~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이 ㉠에 들어갈 탈춤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지역 문화 정체성 형성’이 된다.

01 ③ 02 ⑤ 03 '세계'를 '한 덩이의 과일'로 / 토실토실 익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하나로 연결된 (한 덩어리로 뭉쳐 서로 화합하는,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를 바란다. 04 ④ 05 ④ 06 ② 07 ①은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 주고, ①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는 눈물짓듯 웃어 준다. 따라서 ①과 ①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08 ④ 0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③ 15 ④ 16 시드뱅크는 종자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그러나 시드볼트에 보관한 종자는 위급하지 않으면 밖으로 꺼낼 수 없다. 17 ③ 18 ② 19 ⑤ 20 ④ 21 ④ 22 (다)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다. 23 ③ 24 ③, ④ 25 ③

01 (나)는 4음보가 아니라 2음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ㄹ', 'ㅇ')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는 '포도'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나)는 '~웃는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는 '토실토실', (나)는 '보슬보슬', '알롱알롱'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가)는 특정한 청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동무들아 이리 오나 / 다 같이 춤을 추자'에서 '동무들'이라는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세계는~있는 것이다.'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해 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이다.

채점 기준	배점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시인이 바라는 세계의 모습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4 ㉔는 '처럼'이라는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빗댄 직유법이 쓰였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은 은유법에 해당한다.

05 (가)에서는 '별'과 '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파랑새'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갈등 해결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나'로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으나 (나)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작가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06 '앞부분의 줄거리'로 보아 툄틸과 미틸 남매는 요술쟁이 할머니가 아니라 요정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07 서술형 화자는 '외로워 쳐다보면 / 눈 마주쳐 마음 비춰 주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 / 눈물짓듯 웃어 주는', '들꽃'이 되고 싶어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별'과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별'과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별'과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8 (나)의 '#청소년\_독후감\_쓰기\_대회 #달빛동\_마음중학교\_1학년\_3반\_김주연'과 (다)의 '#내가\_읽은\_책 #인상\_깊은\_구절 #어린\_왕자'가 해시태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해시태그들은 개인적인 정보나 활동(관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자체로 인기 있는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없다.

09 (가)~(다)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들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10 청소년 독후감 쓰기 대회 참가 방법은 '(붙임 1) 제스회 청소년 독후감 쓰기 대회 안내.hwp'를 내려 받아 보면 알 수 있다.

11 (다)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소통할 때, 시청각 자료는 생산자의 필요에 따라 첨부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②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12 (나)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논설문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② (가)에는 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구분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시트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나)는 주장하는 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13** (가)에서 식물 종자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읽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정리하면 된다.
  - ③ 시드뱅크의 개수는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어 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요약할 때는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있으면 그 문장을 선택하고 없으면 중요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세부 정보들을 묶어 주는 말로 일반화하면 된다.

**14** (가)에서 식물 종자를 보관하는 시드뱅크나 시드볼트의 역할에 생태계 복원이나 보전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나)에서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생태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꿀벌은 사라져 가는 곤충에 해당하므로 ㉠에는 ‘생태계’, ㉡에는 ‘곤충’이 들어가야 한다.

**15**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개인적 노력에 해당하므로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되기에는 알맞지 않다.

**16** **서술형** (가)에서 시드뱅크와 시드볼트의 차이는 종자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지, 아닌지이다. 이를 두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되 두 문장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연결어(접속어)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차이를 <조건>에 모두 맞게 요약했을 때	4
㉠과 ㉡의 차이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요약했을 때	3
㉠과 ㉡의 차이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요약했을 때	1

**17** (나)는 사회 교과서의 일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보통 역사 교과서의 요약과 관련이 있다.

**18** (나)에 제시된 학습 목표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공법과 사법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법은 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없으므로 내용을 정리할 때 삭제하는 것이다.

**19** (가)~(라)는 ‘탈춤의 특징과 가치’를 주제로 우리나라 탈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 과정에서는 글의 목적, 설명 대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글의 유형을 정리하여 계획해야 한다. 여러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 해당한다.

**20**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할 때는 정보의 양이 많고 적음보다는 정보가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고(ㄱ) 출처가 명확하며(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ㄷ)를 살펴봐야 한다.

**2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을 알차고 풍부하게 하여 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오답 풀이**
- ① 쓰기 윤리를 지키며 정보를 수집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예상 독자는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여 독자의 읽기 목적을 파악할 수는 없다.
  - ⑤ 글의 주제는 하나여야 하며, 하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22** **서술형** (다)는 뉴욕에서 공연된 한국의 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활용할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정보 중요도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다)의 정보 중요도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다)의 정보 중요도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23** (라)의 ‘중간 2’는 ‘탈춤 공연 방식과 특징’이라고 하였는데, ‘공연 비용’은 ‘탈춤 공연 방식과 특징’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상위 항목인 ‘탈춤 공연 방식과 특징’을 고려하여 ‘(탈춤 공연) 특징’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으로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데 ‘세계 인형극 축제’는 글의 설명 대상인 ‘탈춤’과 거리가 있어 알맞지 않다. 오히려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이 독자의 흥미를 끌며 글의 화제를 제시하기에 알맞다.
  - ② ‘중간 1-(1)’ 뜻은 상위 항목인 ‘중간 1. 탈춤의 뜻과 종류’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 ④ ‘중간 3-(1), (2), (3)’은 탈춤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간 3’은 ‘탈춤의 역사’가 아니라 ‘탈춤의 가치’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탈춤 공연 참여 방법’은 ‘중간’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데, 내용을 마무리하는 ‘끝’에 주제와 거리가 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24** (가)와 (나)는 ‘유네스코에서 높게 평가받은 탈춤의 가치’라는 비슷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 함께 언급된 ‘보편적 평등의 가치(㉠, ㉡)’는 하나로 아우르고, (가)의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남녀 모두가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점(㉢)’, (나)의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탈춤의 가치를 언급하는 정보이므로 모아 통합하여 활용하면 된다.

**25** ㉠의 ‘초미의 관심사’는 학교 신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도로 고칠 수 있다. 또한 (나)의 ‘중간 1’로 보아 제시된 글의 2문단에는 탈춤의 뜻, 그리고 탈춤의 지역별 이름과 종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 외국인을 위한 탈춤 안내 책자 제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중간 1’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 01** ① **02** ③ **03** ② **04** 정민이의 대답은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 아빠의 찡그린 표정과 언어 표현 ‘너무’ 등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민이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일게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05** ⑤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③ **11** 동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형태의 변화에 제약이 따른다.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② **18** ③ **19** ④ **20** ‘나’는 깨진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옥수수 아저씨에게서 받고자 한다.  
**21** ④ **22** ④ **23** ⑤ **24** ④ **25** 거피가 죽은 후 글쓰이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글쓰이의 감정을 강조한다.

**01** 추론하며 들을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화자가 사용한 표현도 고려해야 한다.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적 표현 외에도 목소리 크기나 말투, 속도 같은 준언어적 표현, 동작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고려해야 한다.

**02** ‘너무’라는 말은 지나침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텔레비전의 소리가 크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아빠와 (나)의 할머니는 언어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서 화자가 사용한 표현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⑤ (나)에서 할머니는 찡그린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다. 할머니는 힘들어하는 표정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03** (나)에서 할머니는 학생에게 ○○ 아파트에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다. 그런데 학생은 할머니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할머니의 의도를 고려하여 ○○ 아파트에 가는 방법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04** **서술형** (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과 아빠의 찡그린 표정, “너무 크지 않니?”라는 언어적 표현 등으로 보아 아빠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니 정민이에게 소리를 줄이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민이는 상황에 알맞은 대답을 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정민이가 해야 할 올바른 대답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정민이가 해야 할 올바른 대답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정민이가 해야 할 올바른 대답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5** (가)와 (나)에서 효진이 한 말은 친구에 대한 시기심이나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는 말은 아니다. (가)는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칭찬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고 (나)는 자신의 수첩을 더럽힌 동생을 야단치려는 의도로 한 말이다.

**06** (가)에서 효진은 친구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그린 그림에 대한 칭찬과 놀람을 표현하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 효진은 낙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낙서를 동생이 한 것임을 알고 동생을 야단치려고 말한 것이다.

**07** 단어의 구성은 품사를 구분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 즉, 단어의 짜임과 관련이 있다.

**08** ‘평화’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라는 뜻으로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음식, 선물, 준호, 고등학교’는 모두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9** <보기>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셋은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에서 ‘셋’은 수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한’, ‘한두’, ‘두’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형사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⑤ ‘다섯’은 ‘장’을 꾸미는 관형사로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Tip**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수 관형사)’의 특성

수사와 수 관형사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는 체언으로서 조사가 올 수 있음.</li> <li>· 수 관형사는 조사가 올 수 없음.</li> <li>· 수사와 수 관형사는 형태가 같더라도 뒤에 체언이 와서 수식의 기능을 할 경우 수 관형사로 간주함.</li> </ul>
---------------	---

→ 수사와 수 관형사가 헷갈릴 때는 먼저 뒤에 조사가 오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뒤의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함.

**10** ‘성실하다’는 형용사로서 청유형 쓰임이 어색하다. 따라서 ‘성실하게 지내자.’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11** **서술형** 제시된 문장들을 보면 동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 등 다양한 형태로 문장에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형태를 바꾸었을 때 어색한 것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12** ‘아주아주’, ‘너무너무’, ‘뚝뚝’은 모두 용언을 꾸미는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은 감탄사이다. ③ 체언을 꾸미는 말은 관형사이다. ④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⑤ 주체의 상태나 동작을 서술하는 것은 각각 형용사와 동사이다.

**13** ‘정원에’의 ‘에’는 장소를 나타내며,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격 조사)이다. 나머지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보조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는’은 강조의 뜻을 더한다. ③ ‘도’는 포함의 의미를 더한다. ④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의미를 더한다. ⑤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된다는 의미를 더한다.

개념어 풀이

**Q** 격 조사와 보조사란?

**A** 격 조사는 단어에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가리킨다. 주격, 목적격, 서술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조사가 있다. 반면에 보조사는 문법적인 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가리킨다.

**14**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낸다. ‘아, 버스를 놓치고 말았네. 큰일이 났다.’에서 ‘아’가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에 해당한다. ③ ‘하늘이여!’는 체언에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 ‘이여’가 붙은 것으로 ‘명사+조사’의 형태이다. ④ ‘자유’는 명사가 독립적인 말로 쓰인 것이다.

**15**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 이것, 이’가 해당한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로, ‘여러, 그’가 해당한다. 수사는 수량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가 수사에 해당한다.

**16** 이 글은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실제 인물이 겪은 일을 서술한 글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인공 ‘내가 두 번의 교통사고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성장 소설이다. ③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은 작품 속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속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념어 풀이

Q 허구란?

A 소설이나 희곡에서 실재가 아닌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설은 작가가 상상으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17 (바)에서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를 떠올리며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주인공이 앞으로도 계속 이기적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8 (다)에서 '나'는 사고 후에 선글라스 아저씨를 원망하면서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사고를 당할 뻔해서 놀랐다.

② (나)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찢찢매는 모습을 보고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다.

④ (라)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떠올렸지만 뚜렷하지 않은 방법이라 긴장하고 있다.

⑤ (마)에서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사정을 듣고 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19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과 같이 옥수수 아저씨를 뺑소니범으로 취급하는 아빠의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게 연락처를 주고 나중이라도 꼭 연락 달라는 모습에서 옥수수 아저씨가 책임감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옥수수 아저씨가 사고가 났을 때 급히 떠난 까닭은 전화를 하여 옥수수 아저씨를 다시 만난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알 수 없었다.

③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 후에 주변을 살피지 않은 '나'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연락처도 주지 않고 떠났다.

⑤ '나'는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 서술형 (라)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자신이 스마트폰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해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눌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선글라스 아저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후 '나'가 떠올린 '어떤 생각'은 옥수수 아저씨에게 스마트폰 수리비를 받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내용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의 내용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의 내용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21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선택하고 경험과 정서를 구체화하여 글을 써야 한다.

22 글의 내용을 마련할 때는 경험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경험을 구체화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거나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다.

23 (가)로 보아 '나'는 동생이 학교에서 받아 온 물고기를 '동생의 물고기'로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고기는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점점 '나'의 생활에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다영이는 물고기를 떠나보낸 후 느꼈던 슬픈 감정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정리가 되고 스스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독자에게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 공감하게 하여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삶의 방식이 독자에게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25 서술형 물고기를 떠난 보낸 후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은 것을 통해 '나'의 슬픔이 강조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리얼 모의 기말고사 2회

226~231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8 ③ 09 ④ 10 ㄱ의 '를'은 인국이가 칭찬의 직접적인 대상임을 나타내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고, ㄴ의 '도'는 칭찬의 대상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인국이기도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더하며 문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준다.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옥수수 뽕소니는 '나'이다. 왜냐하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거짓말로 옥수수 아저씨를 뽕소니범으로 몰아간 '나의 행동은 뽕소니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18 ④ 19 ④ 20 ⑤ 21 ⑤ 22 ③ 23 ④ 24 ④

25 글쓰기가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어 독자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01 (가)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가 아닌, 실제 고궁 장면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뉴스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영상 해설사의 말을 통해 고궁을 안내하는 영상 해설사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가)는 장애인을 위한 고궁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뉴스이다.

④ (나)는 유명인인 달라이 라마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⑤ (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정작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2 (가)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담화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의 뉴스이다.

**오답 풀이** ② 뉴스는 주장을 전달하는 담화가 아니다.

③, ④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담화 유형의 예는 연설이다.

⑤ 뉴스는 친교적인 담화가 아니다. 친교적인 담화의 대표적인 예는 일상의 대화이다.

03 (나)의 화자는 현재를 즐기지 않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담화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②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은 화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④ 현재를 중시한다고 해서 미래의 가치를 희생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기자가 영상 해설 서비스에 대해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기자는 고궁 장면 해설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명사는 체언, 관형사는 수식언이나 동사는 관계언이 아니라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② 명사는 모든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고, 관형사는 모든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한편 동사는 격 조사는 결합할 수 없으나 '먹지는 않았다.'의 '는'과 같이 보조사는 결합이 가능하다.

④ 동사는 용언으로 다양한 어미가 결합할 수 있으나 명사와 관형사는 불변어로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다.

06 <보기>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로 체언에 속한다. '약을 받으려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의 '거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②, ④ '그'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③ '이'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⑤ '이번'은 '행사'를 꾸미고 있지만 품사는 명사이다. 우리말에서 명사는 문장에서 다른 명사를 꾸미는 역할(관형어)을 하기도 한다.

개념어 풀이

Q 지시 관형사란?

A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이다. '이', '저', '그', '다른' 등이 있다.

07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②는 용언 중 형용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다. ②의 '모시고'(기본형 '모시다'), '가기'(기본형 '가다'), '부탁드려요'(기본형 '부탁하다')는 모두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무뚝뚝한'은 기본형이 '무뚝뚝하다'로 형용사이다.

③ '즐거는', '좋아요'는 각각 기본형이 '즐거다', '좋다'로 형용사이다.

④ '덥고', '습한'은 기본형이 각각 '덥다', '습하다'로 형용사이다.

⑤ '빨갳고', '노란'은 기본형이 각각 '빨갳다', '노랗다'로 형용사이다.

Tip

'기본형'으로 교체하고 구분하기

기본형으로 교체하기	용언은 문장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므로,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교체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함.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인 것을 기본형이라고 함.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	기본형으로 교체한 후, 명령형, 청유형이 올 수 있으면 동사, 명령형, 청유형이 어색하면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음.

08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수식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오는 말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해 준다. ㄴ의 '사과 두 개'에서 '두'는 '개'를 꾸미면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ㄷ의 '그 사람'에서 '그'는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ㄹ의 ‘옛 친구’에서 ‘옛’은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ㄱ. ‘그’는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ㄴ. ‘첫째’는 ‘첫째 아이’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09**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④에서 ‘과연’은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와’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아주’는 ‘좋았습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어머나’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너무’는 ‘어려운’(형용사)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0** **서술형** ‘를’과 ‘도’의 품사는 모두 조사이지만, 문장에서 ‘를’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도’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채점 기준	배점
밀줄 친 단어의 차이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밀줄 친 단어의 차이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밀줄 친 단어의 차이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11** 수식언은 문장에서 주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보기>의 ㉠, ㉡, ㉢은 뒤의 용언을 꾸미는 부사이고, ㉣, ㉤은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12** ‘거의’는 용언 ‘없다’를 꾸며 주는 부사로 주체의 행위를 서술하는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다시’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라는 뜻의 부사이다.  
 ③ ‘벗고’의 기본형은 ‘벗다’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④ ‘무뚝뚝하고’의 기본형 ‘무뚝뚝하다’는 ‘말이나 행동, 표정 따위가 부드럽고 상냥스러운 면이 없어 정답지가 않다.’라는 뜻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3** 이 글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옥수수 아저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모습과 같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의 속마음이 솔직하게 잘 드러나 있다.  
 ④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신이 한 거짓말을 뉘우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옥수수’는 옥수수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따뜻한 옥수수를 보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을 되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보기>는 멀미가 심한 학생이 경보에 도전하면서 행복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만복이는 공부보단 운동이 쉬울 것 같아 운동을 택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운 것 같아 갈등하고 있다. 이 글의 ‘나’ 또한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받으려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며, 이 글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낸 소설이다.  
 ③ <보기>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이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작품 속 ‘나’가 서술자이다.  
 ④ <보기>는 만복, 수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글에서는 옥수수 아저씨와 선글라스 아저씨가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⑤ 글쓰기가 실제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은 수필이다.

**15** ‘나’는 핸드폰 수리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철이 없고 단순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옥수수 아저씨의 사정을 알고 아저씨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16** ㉠은 ‘나’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아프지 않는데 환자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반성을 담은 표현이다.

**17** **서술형** 이 글에서 ‘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망가진 친구의 스마트폰을 책임지지 않고 잘못이 없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그 책임을 미루려고 했다. 따라서 뺑소니를 친 사람은 옥수수 아저씨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제목의 의미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제목의 의미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제목의 의미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18** (가)에서 만복이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경기에서 기권한다. 그리고 (나)에서 만복이는 천천히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19** 이 글은 인간의 성장을 다룬 영화 대본이다.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그린다. 이러한 글을 읽으면 독자는 인물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다. 실제 인물이 경험한 일만 독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나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21**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글쓴이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 글로 쓸 경험을 글감으로 정하고 경험과 정서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기, 마인드맵 활용하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정서,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감정을 긍정적이게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

**22**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처음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때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야 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경험에서 느낀 정서를 제외하고 경험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후 끝부분에서는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정리한다.

- 오답 풀이** ① 내용을 조직할 때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함을 알게 됨'과 같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④ 글의 개요란 글에 들어갈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⑤ '물고기를 '안녕, 나의 물고기'로 수정한 것처럼 글의 제목은 자신의 경험이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한다.

**23** 물고기의 죽음을 보았을 때 글쓴이가 느낀 감정은 슬픔, 미안함, 죄책감, 안타까움이다. 서먹함은 낯설어서 어색한 감정이므로 글쓴이가 느낀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24** ㉔은 굴색 거피가 점점 생기를 잃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25** **서술형** 글쓴이는 정서 표현의 글을 씀으로써 감정이 정리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험이 진솔하게 드러난 글을 읽으면 독자도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좋은 점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좋은 점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좋은 점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언어적 표현, 땀을 흘리는 모습, 힘들어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OO 아파트에 가는 길을 묻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09** ④

**10** ② **11** ② **12** ③ **13**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관형사는 1처럼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데, 2처럼 수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사는 1처럼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2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경우도 있다. **14** ②

**15** ⑤ **16** ⑤ **17** ③ **18** ⑤ **19** ‘나’는 자신이 옥수수 아저씨에게 한 거짓말이 비양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며 내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를 뒤따라 병동을 뛰쳐나간다. **20** 옥수수 **21** ④

**22** ⑤ **23** ④ **24** ③ **25** 물고기를 데려온 첫날에는 신나는 기분이었지만, 특별히 아끼던 거피가 죽자 매우 슬펐다.(굴색 거피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결국 물고기가 죽음에 이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01** 이 글은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 보도한 뉴스이다. 뉴스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대표적인 유형은 연설이다.

- 오답 풀이** ④ ‘기댈 수 있는 팔’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상 해설사의 도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⑤ 스마트폰 수어 설명 이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뉴스의 전달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나)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수어 설명도 작년 부터 활용돼 왔습니다.’에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청각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수어 설명’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인터뷰가 실려 있다.  
 ③ 영상 해설사는 고궁의 모습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  
 ④ ‘국가유산청은~계획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눈 대신 귀로 보고 손으로 느낍니다.’에서 장면 해설 서비스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고궁에 대해 귀로 듣고 손으로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 사업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없다.

**04** 이 글을 추론하며 들을 때 장애인에 대한 기자의 평소 인식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추론하며 들을 때는 상황 맥락과 화자가 사용한 표현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기자가 제시한 설명은 언어적 표현으로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 ② 기자가 사용한 단어와 문장은 언어적 표현으로서 추론하며 들을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 ③ 기자가 인터뷰 활용을 통해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추론해 봐야 한다.
- ④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기자의 관점은 그 의도를 추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05** ‘친절한 설명’이라는 표현에서 기자의 관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자는 영상 해설이나 스마트폰 수어 설명이 생생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장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상황 맥락과 할머니가 사용한 표현으로 보아 할머니는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학생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설득을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 아파트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학생에게 말한 것이다.
- ②, ③ 학생은 할머니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④ 할머니가 잘못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07** 상황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말한다. 화자, 청자, 대화 내용, 주제 등도 담화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황 맥락에 포함된다. 이 담화에서 할머니는 ○○ 아파트에 가는 방법을 학생에게 묻고 있다. 따라서 장소는 ○○ 아파트가 아닌, 버스 정류장이다.

**08** **서술형** 할머니는 ‘○○ 아파트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힘들어하는 표정, 땀을 닦는 동작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가 사용한 표현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화자가 사용한 표현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화자가 사용한 표현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09** 관형사와 부사는 꾸미는 말로서 뒤에 조사가 오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단, 부사의 경우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척’과 같은 부사에는 ‘이나’와 같은 조사가 붙을 수 있다.

**10** ‘하나’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며 뒤에 조사가 오는 것으로 보아 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한두’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준다.
- ③ ‘셋째’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아들’을 꾸며 준다.

- ④ ‘온갖’은 뒤에 오는 체언 ‘물건’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⑤ ‘여러’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명’을 꾸며 준다.

**11**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부사이다. 부사는 다른 말(주로 용언)을 꾸며 주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는 조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많이도 온다.’와 같이 부사는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 ③ ‘드디어 숙제를 다 했다.’, ‘숙제를 드디어 다 했다.’와 같이 부사는 위치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Tip**

**‘부사’의 쓰임**

부사의 쓰임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함.

→ 부사를 찾을 때는 용언의 앞에 꾸미는 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12** ‘이’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즉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3** **서술형** ㄱ에서 ‘어떤’과 ‘세’는 관형사로 체언 ‘사람’을 꾸며 주고 있으며, ‘세’는 수량의 의미도 나타낸다. ㄴ에서 ‘아주’는 부사로 용언 ‘착한(착하다)’를 꾸며 주고 있으며, ‘모름지기’는 뒤에 오는 문장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를 꾸며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관형사, 부사의 특징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관형사, 부사의 특징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3
관형사, 부사의 특징을 <조건>의 일부만 반영하고 각 쓰임의 차이를 하나만 서술했을 때	1

**14** 감탄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가변어로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어미란 ‘가다’, ‘가니’의 ‘-다’, ‘-니’처럼 용언에서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이다.

**15** ‘이’는 뒤에 오는 ‘자료’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바로’는 ‘앞에서’를 꾸미는 부사로 명사를 꾸미는 예외적인 부사이다. ‘이곳’은 대명사로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다.

**16** ‘번거로우시겠지만’의 기본형은 ‘번거롭다’로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 등의 쓰임이 어색한 형용사에 해당한다. ‘번거롭다’는 ‘일의 갈피가 어수선하고 복잡한 데가 있다.’의 뜻이다.

- 오답 풀이** 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대명사이다.

- ② ‘어린이’는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 ③ ‘자주’는 ‘드나들기’를 꾸며 주는 부사로, ‘같은 일을 잇따라 갖게’를 뜻한다.
- ④ ‘에’는 문장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7** 이 글은 인간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다.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사실인지 허구인지 따지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

**18** 이 글의 주제는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제와 관련 있는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은 ‘나’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다. ‘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거짓말이 따뜻하고 순박한 옥수수 아저씨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음을 깨닫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로 결심하면서 성장한다.

**19** **서술형** ‘나’는 상황에 떠밀려 옥수수 아저씨에게 잘못을 떠넘긴 후 옥수수 아저씨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밖으로 급히 뛰쳐나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성장을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나’의 성장을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나’의 성장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20** 이 글에서 옥수수 아저씨는 ‘나’의 병실에 찾아와서 검은 봉지를 건넨다. 그 안에는 아저씨가 트럭에서 파는 뜨끈뜨끈한 옥수수가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하고 순수한 성격을 알 수 있다.

**21** ‘나’는 옥수수 아저씨가 급하게 사고 현장을 떠나야 했던 사정을 듣고 나서 당황스러워한다. 그리고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후 자신의 거짓말을 반성하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로 결심한다.

**22**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는 갈등의 전개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의 구성 단계이다.

**23**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한 가지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써야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좋은 글이 된다. 다양한 주제의 경험을 한편의 글에 담으면 주제가 한 가지로 구체화되기 어렵다.

**24** 이 글은 물고기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구체적

으로 표현한 글이다. (나)에서 글쓴이는 어느 날부터 힘이 없어진 물고기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전하며 물고기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물고기가 온 첫날, 신이 나서 어항 앞에 앉아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신이 나서 한 행동이다.

② (가)에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듯한 거피’는 물고기를 재미있고 개성 있게 표현한 부분이다.

④ (다)에서는 죽기 직전인 굴색 거피의 모습을 전하며, 글쓴이가 느꼈던 무섭고 이상한 기분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죄책감’, ‘미안’ 등의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5** **서술형** 글쓴이는 (가)에서는 신남, (나)에서는 놀람, (다)에서는 무섭고 멍한 느낌, (라)에서는 죄책감, 슬픔, 미안함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심리 변화를 <조건>에 모두 맞게 서술했을 때	4
‘나’의 심리 변화를 <조건>의 일부만 맞게 서술했을 때	2
‘나’의 심리 변화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했을 때	1



학교마다 OMR 카드의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연습용 OMR 카드에 정확하게 마킹하는 연습을 해요!

중간고사 1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0					년	00	월	00	일			
			과목명		국어					1		학기								중간고사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0	0	0	1	1	2	3	4	5	11	1	2	3	4	5	21	1	2	3	4	5
1	1	1	1	1	2	1	2	3	4	5	12	1	2	3	4	5	22	1	2	3	4	5
2	2	2	2	2	3	1	2	3	4	5	13	1	2	3	4	5	23	1	2	3	4	5
3	3	3	3	3	4	1	2	3	4	5	14	1	2	3	4	5	24	1	2	3	4	5
		4	4	4	5	1	2	3	4	5	15	1	2	3	4	5	25	1	2	3	4	5
		5	5	5	6	1	2	3	4	5	16	1	2	3	4	5	26	1	2	3	4	5
					7	1	2	3	4	5	17	1	2	3	4	5	27	1	2	3	4	5
					8	1	2	3	4	5	18	1	2	3	4	5	28	1	2	3	4	5
					9	1	2	3	4	5	19	1	2	3	4	5	29	1	2	3	4	5
					10	1	2	3	4	5	20	1	2	3	4	5	30	1	2	3	4	5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사람이 아닌 '해님'을 사람이 웃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8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의미하는데, 행복의 나라에는 이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파랑새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다.		
17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은 기후 변화,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지구 온난화 등이 있다.		
25	㉠: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탈춤, ㉡: 사회의식의 발전		

중간고사 2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0					년	00	월	00	일			
			과목명		국어					1		학기								중간고사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0	0	0	1	1	2	3	4	5	11	1	2	3	4	5	21	1	2	3	4	5
1	1	1	1	1	2	1	2	3	4	5	12	1	2	3	4	5	22	1	2	3	4	5
2	2	2	2	2	3	1	2	3	4	5	13	1	2	3	4	5	23	1	2	3	4	5
3	3	3	3	3	4	1	2	3	4	5	14	1	2	3	4	5	24	1	2	3	4	5
		4	4	4	5	1	2	3	4	5	15	1	2	3	4	5	25	1	2	3	4	5
		5	5	5	6	1	2	3	4	5	16	1	2	3	4	5	26	1	2	3	4	5
					7	1	2	3	4	5	17	1	2	3	4	5	27	1	2	3	4	5
					8	1	2	3	4	5	18	1	2	3	4	5	28	1	2	3	4	5
					9	1	2	3	4	5	19	1	2	3	4	5	29	1	2	3	4	5
					10	1	2	3	4	5	20	1	2	3	4	5	30	1	2	3	4	5

중간고사 2회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4	이어 주는 말인 '같은'을 사용해 '마을'과 '집'을 '포도송이'와 '포도알'에 비유하였고, '포도'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7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상징한다.		
15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요약한다.		
24	'중간 1-(3) 탈춤의 공연 비용'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춤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항목)이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3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					년	○○	월	○○	일				
				국어					1										학기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①	①	①	①	1	①	②	●	④	⑤	11	①	●	③	④	⑤	21	①	②	③	●	⑤
①	①	①	①	①	2	①	②	③	④	●	12	①	②	●	④	⑤	22	①	②	③	④	⑤
②	②	②	②	②	3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	⑤	23	①	②	●	④	⑤
③	③	③	③	③	4	①	②	③	●	⑤	14	①	②	●	④	⑤	24	①	②	●	●	⑤
		④	④	④	5	①	②	③	●	⑤	15	①	②	③	●	⑤	25	①	②	●	④	⑤
		⑤	⑤	⑤	6	①	●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2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	④	⑤	2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	⑤	18	①	●	③	④	⑤	2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	⑤	19	①	②	③	④	●	2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	20	①	②	③	●	⑤	30	①	②	③	④	⑤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3	'세계'를 '한 덩이의 과일로 / 토실토실 익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바란다.		
7	㉠은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취 주고, ㉡은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는 눈물짓듯 웃어 준다. 따라서 ㉠과 ㉡은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16	시드뱅크는 종자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그러나 시드볼트에 보관한 종자는 위급하지 않으면 밖으로 꺼낼 수 없다.		
22	(다)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다.		



기말고사 1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0					년	OO	월	OO	일				
				국어					1										학기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①	①	①	①	1	●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21	①	②	③	●	⑤
①	①	①	①	①	2	①	②	●	④	⑤	12	①	●	③	④	⑤	22	①	②	③	●	⑤
②	②	②	②	②	3	①	●	③	④	⑤	13	●	②	③	④	⑤	23	①	②	③	④	●
③	③	③	③	③	4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	24	①	②	③	●	⑤
		④	④	④	5	①	②	③	④	●	15	①	●	③	④	⑤	25	①	②	③	④	⑤
		⑤	⑤	⑤	6	①	②	③	④	●	16	①	●	③	④	⑤	2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	④	⑤	17	①	●	③	④	⑤	2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	⑤	18	①	②	●	④	⑤	2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	④	⑤	19	①	②	③	●	⑤	2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30	①	②	③	④	⑤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4	정민이의 대답은 텔레비전 소리가 큰 상황, 아빠의 찡그린 표정과 언어 표현 '너무' 등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민이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일게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11	동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형태의 변화에 제약이 따른다.		
20	'나'는 깨진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옥수수 아저씨에게서 받고자 한다.		
25	거피가 죽은 후 글쓴이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글쓴이의 감정을 강조한다.		

기말고사 2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0					년	OO	월	OO	일				
				국어					1										학기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①	①	①	①	1	①	②	●	④	⑤	11	①	②	③	●	⑤	21	①	②	③	④	●
①	①	①	①	①	2	●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	22	①	②	●	④	⑤
②	②	②	②	②	3	①	②	●	④	⑤	13	①	②	●	④	⑤	23	①	②	③	●	⑤
③	③	③	③	③	4	①	②	③	●	⑤	14	①	●	③	④	⑤	24	①	②	③	●	⑤
		④	④	④	5	①	②	③	④	●	15	①	②	③	●	⑤	25	①	②	③	④	⑤
		⑤	⑤	⑤	6	●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	26	①	②	③	④	⑤
					7	①	●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2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	④	⑤	18	①	②	③	●	⑤	2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	⑤	19	①	②	③	●	⑤	2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	30	①	②	③	④	⑤

기말고사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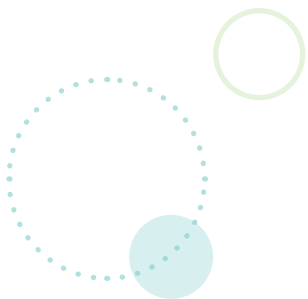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10	가 '를'은 인국이가 칭찬의 직접적인 대상임을 나타내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고, 나 '도'는 칭찬의 대상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인국어도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더하며 문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준다.	25	글쓴이가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성찰해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어 독자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17	옥수수 뽕소니는 '나'이다. 왜냐하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거짓말로 옥수수 아저씨를 뽕소니범으로 몰아가 '나'의 행동은 뽕소니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기말고사 3회

학년	반	(반) 번호	성 명	김미래					2020					년	○○	월	○○	일				
				국어					1	학기									기말고사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문항	1	2	3	4	5	
	①	①	①	①	1	①	②	●	④	⑤	11	①	●	③	④	⑤	21	①	②	③	●	⑤
①	①	①	①	①	2	●	②	③	④	⑤	12	①	②	●	④	⑤	22	①	②	③	④	●
②	②	②	②	②	3	①	②	③	●	⑤	13	①	②	③	④	⑤	23	①	②	③	●	⑤
③	③	③	③	③	4	①	②	③	●	⑤	14	①	●	③	④	⑤	24	①	②	●	④	⑤
		④	④	④	5	①	②	●	④	⑤	15	①	②	③	④	●	25	①	②	③	④	⑤
		⑤	⑤	⑤	6	①	②	③	④	●	16	①	②	③	④	●	2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	⑤	17	①	②	●	④	⑤	2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	2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	⑤	19	①	②	③	④	⑤	29	①	②	③	④	⑤
					10	①	●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30	①	②	③	④	⑤

문항	서술형 답란	문항	서술형 답란
8	“내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라는 언어적 표현, 땀을 흘리는 모습, 힘 들어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아파트에 가는 길을 묻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20	옥수수
13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관형사는 1처럼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데, 2처럼 수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부사는 1처럼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2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경우도 있다.	25	물고기를 데려온 첫날에는 신나는 기분이었지만, 특별히 아끼던 거피가 죽자 매우 슬펐다.
19	‘나’는 자신이 옥수수 아저씨에게 한 거짓말이 비양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며 내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를 뒤따라 병동을 뛰쳐나간다.		

메모



메모

